

第 42 號

速記界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速記界

2006 - 42



社團 大韓速記協會
法人

速記界

Contents >>> >>> >>> >>>>>>>

권두언

- 4 | 민족문화발전에 공헌합시다 • 고흥길

논단

- 6 | 문법이 살아야 의미가 산다 • 홍기표
- 32 |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과의 바람직한 관계 • 손상범

세미나...

- 38 | 2005년 속기협회 학술세미나를 돌아보며 • 최윤정

징검다리

- 41 | 겨울 나무에서 봄나무에로 • 황지우
- 42 | 인터넷 유머 모음 • 최혜련

인터스테노

- 45 | 참가보고서/국제부
- 53 | IPRS에 대해서/홍보부
- 59 | 참가신청안내/국제부

※ 표지설명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조선 시대 역대 임금들의 실록(實錄)을 합쳐서 부르는 책 이름이다. 즉 〈태조강헌대왕실록(太祖康獻大王實錄)으로부터 〈철종대왕실록(哲宗大王實錄)〉에 이르기까지 472년간에 걸친 25대 임금들의 실록 28종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기획하여 편찬한 역사서가 아니라, 역대 조정에서 국왕이 교체될때마다 편찬한 것이 축적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새 의자

60 | 아! 42,195km · 박순필

회원등산

- 72 | 내마음의 황사 · 신종식
75 | 신속 · 정확, 그리고 영상회의록 · 서현숙
80 | 나의 유럽 여행기 · 박정현
90 | 『희망의 이유』를 읽고 나서 · 이정윤

기지수첩

- 94 | 35년, 어떤 의미일까 · 유점임 기자
98 | 헌법재판소의 그녀들 · 박윤희 기자

우리들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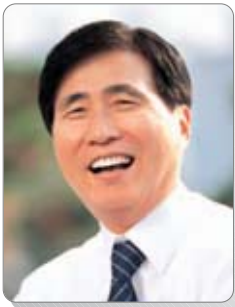
- 102 | 첫 발령, 그리고 속기과 · 노세현
106 | 다시 부르는 나의 노래 · 제신지
110 | 영원한 속기사 · 이해정

113 | 협회등정

114 | 편집후기



민족문화발전에 공헌합시다



회장 고흥길

친애하는 속기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장 고흥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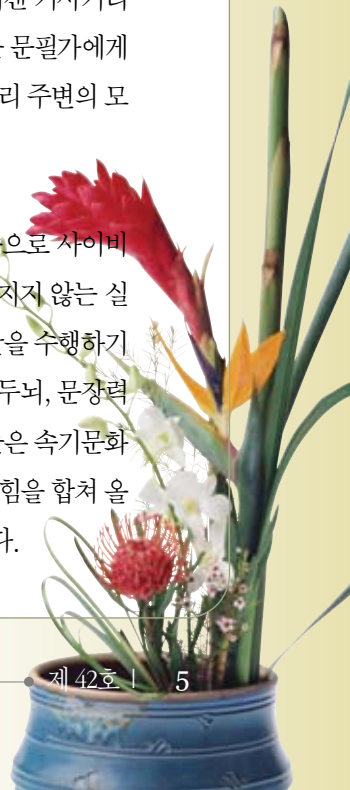
최근, 지난 1913년 데라우치 조선총독에 의해 도쿄대로 반출되었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의 반환문제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불교계와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는 오는 5월 31일 조선왕조실록 환수를 위한 3차 협상을 여는 등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의 반환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1392년부터 1863년까지 472년에 걸친 조선왕조의 역사서로 오대산사고는 조선후기 한반도에 설치한 역대의 실록을 보관한 5대 창고 중 하나입니다. 일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같은 뿌리라는 내선일체 사상을 주입하기 위하여 먼저 역사의 기본적인 사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실록은 가장 중요한 1차 자료였습니다. 실록은 우리 역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그 중심에는 이를 기록한 사관(史官)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삼장지재(三長之才)가 요구되었습니다. 삼장지재(三長之才)는 재(才), 학(學), 식(識)을 말합니다. 재(才)는 역사를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을, 학(學)은 해박한 역사지식을, 마지막으로 식(識)은 현실을 직시하여 공정하게 시비포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승정원 일기는 조선시대 승정원에서 어전회의를 비롯하여 문서와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할 때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승정원에서 사관이 기록한 원본이 오늘날의 속기록과 같은 사초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국회만큼 현대사의 중요한 사초가 될 속기록이 발간, 보존되는 곳도 없을 것입니다. 속기사들은 국회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가감 없이 기록하여 그 어느 사료보다 정확한 우리나라 현대사의 사초를 기록합니다. 그 기록은 역사학자들에게는 사료를, 언론인들에게는 기사거리를, 경제인들에게는 기업경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문학 하는 문필가에게는 작품의 소재를, 학자들에게는 연구자료를 각각 제공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문화에 영향을 주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사이버 속기술이 난무할 뿐만 아니라 속기사의 처우개선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더 역사 기록의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유능한 속기술과 풍부한 경험, 폭 넓은 상식과 명석한 두뇌, 문장력 등의 자질과 교양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속기문화의 발전과 속기인의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같이 힘을 합쳐 올바른 속기문화를 보급, 민족문화발전에 공헌합시다. 감사합니다.



문법이 살아야 의미가 산다

홍 기 표

들어가는 말

속기록 작성의 대원칙은 '말한 그대로'이다. 그러나 이 말은 음성언어를 일언일구 빠짐없이 문자화하라는 것이 아니다. 말은 현장에서 들을 때는 음성언어이지만, 속기록으로 독자들에게 전달될 때는 문자언어가 된다. 따라서 속기사는 음성언어의 정확한 의미를 문자언어로 살려 내야 한다. 이른바 수문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음성언어의 의미와 구조를 분석·재구성하여 문자언어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구두점을 챙겨 주고, 문법을 챙겨 주고, 문체를 챙겨 주는 것이다.

그중에서 문법을 챙겨 주어야 할 이유를 같이 생각해 보자.

문법은 본래 남의 말을 좀더 바르게 이해하고, 자기의 말과 글을 좀더 바르게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나 속기사에게는 남의 말을 좀더 바르게 이해함과 아울러, 이를 좀더 효과적으로 문자언어화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반인들은 일상의 문자 생활에서 문법을 의식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그러나 문법을 모르고는 정확한 속기록의 작성에는 한계가 있다.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는 그 질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속기록의 질과 정확성은 문법을 어떻게 챙겨 주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특히나 의회 속기록은 역사성과 증거성을 가지는 엄중한 기록이다. 문법적 안목 없이 속기록을 작성한다는 것은 그 엄중함에 대한 모독이다. 속기사의 문법적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 예문을 보라.

“물가는 통화량의 조절, 정부재정의 긴축, 유통구조의 개선과 물류비용의 절감 등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함은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읽는 순간 문장의 흐름이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든다. 자신의 오청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문자화해 놓았기 때문이다. 서술어 ‘억제할 수 있습니다’의 목적어를 찾아보라. ‘물가’ 인가, ‘시행함’ 인가? ‘물가’ 다. 그렇다면 ‘시행함’은 오청일 가능성이 크다. 무엇을 오청한 것일까? 이렇게 문법적으로 조금만 따져 보면 ‘시행함’은 ‘시행하면’의 오청임을 이내 알아차릴 수 있다.

속기사에게 오청의 위험성은 늘 따라다닌다. 그러나 문장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그 위험성이 훨씬 적다. 문법적 안목은 청취 능력의 부족을 보완해 줄뿐더러, 나아가서는 음성언어의 의미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문자언어로 살려 냄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건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지난 2001년 대한속기협회에서 번역, 간행한 바 있는 『Hansard』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문에 있어서 문법을 챙겨 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군더더기 말은 걸러 내자

- ① 물론 뭐 검사가 수사라든가 직무 수행 중에 관련된 언론보도가 오보를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참 명예 훼손하는 그 정도의 뭐 잘못된 보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법에 호소하고 뭐 검사들이 할 수 있습니다.
- ②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뭘니까? 진정인이 진정취하 비슷한 진술서 하나 냈다고 해서 아무도 소환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 ③ 철도 민영화 논쟁이 있을 때도 말이지요. 다들 우려한 것이 공공 서비스 기능이 상업화되면서 질이 저하될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속기를 하면서 ‘에’, ‘마’ 따위 간투사는 기록하지 않는다. 속기록의 정확성과는 상관없는 군더더기이기 때문이다. 군더더기는 그 외에도 많다. 예문에 나타난 뭐, 참, 뭘니까, 말이지요, 이런 것이 바로 그러한 군더더기에 해당한다. 정확성과 상관없는 이런 것들까지 세세히 기록해 놓으면 우선 독자들을 짜증스럽게 한다. 그리고 때로는 내용 파악에 지장을 주고 정확성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예문 ②가 그 단적인 예이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뭘니까?”

마치 하나의 질문처럼 되어 있다. 여기서 ‘뭘니까’는 발언 도중 다음 말이 열릴 생각은 안 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군더더기 말이다. 예문 ③의 ‘말이지요’ 역시 발언자의 평소 말버릇에 따라 발언 중간에 끼어든 군더더기일 뿐이다. 속기록

을 작성할 때 이런 군더더기들은 과감히 걸러 내는 것이 좋다. 그래야 문법이 살고, 문법이 살아야 의미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까지 그대로 기록하여 마치 하나의 독립된 문장처럼 만들어 놓은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속기사의 자질을 의심케 할 뿐이다. 속기록의 생명은 ‘정확성’이다. 군더더기까지 살려 주는 것은 ‘정밀한’ 기록일지는 몰라도 ‘정확한’ 기록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뭐, 참 따위가 항상 군더더기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 ④ 그 당시 국제경제연구원의 공산권실장 소개로 여기에 뭐 할 수 있다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 ⑤ 제가 뭐, 갈 데가 없어서 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도와 달라는 부탁을 거절치 못했던 것입니다.
- ⑥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에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문 ④의 ‘뭐’는 대명사, ⑤의 ‘뭐’는 감탄사, ⑥의 ‘참’은 부사다. 각각 문장 구조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의 단어다. 절대 군더더기가 아니다. 문법적 안목이 없는, 기계적인 수문은 이럴 때 위험하다. 자칫 의미와 뉘앙스를 바꾸어 놓을 수가 있으니까.

- ⑦ 그다음에 이게 몇 항이지요, 16항이요. 부패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정 의견제시의 건인데요.
언론에서도 이 문제 제기가 많이 있던데요. 이게 2002년도에 제정되어야 하는 건데 법사위에서 계류되다가 16대 때 폐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문에서 발언자는 한 가지 질의를 끝내고 나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려는 중에 그 질의가 의사일정 및 항과 관련된 것인지 얼른 생각나지를 았았다. 그래서 중얼거리듯 “이게 몇 항이지요.” 한 것이다. 이런 것 역시 군더더기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16항이요.”에서 ‘이요’ (사실은 ‘요’ 라야 맞다.) 또한 군더더기로 보아야 한다. 이런 군더더기를 걸러 내기도 해야겠지만 위 예문에서는 문장의 줄 바꾸기나 구두점의 사용이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았다.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챙겼을 때 문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라.

그다음에 16항 부패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정 의견제시의 건인데요, 언론에서도 이 문제 제기가 많이 있던데요, 이게 2002년도에 제정되어야 하는 건데 법사위에서 계류되다가 16대 때 폐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 하려다가 그만둔 말도 군더더기다

- 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각…… 아까 어떤 위 원님께서 지적하시기를 이 12개 위원회가 서로 연계된 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긴밀한 연결이 필요한 게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신속성인데, 왜냐하면 당장 지금 아주 심각하고, 자영업자 문제가 심각한데 그것을 언제까지 긴 시간을 두고 할 사항이 아니었던 말입니다.
- ② 김선미 위원: 저는 자꾸 나오는 이런 의혹들이 정말 더 투명하게 밝혀져서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정책실장 김병준: 동복아, 저는 행담도 건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비서실장님이 이야기하시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청

와대가 개입되고 청와대가 뒤에서 동북아위원장을 받쳐서 그 사업을 밀어 주고 행담도를 했다면 도로공사 사장이 어떻게 보증 서 주라는 것을 못 하겠 다고 하고, 그래서 동북아 위원장 MOU를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③ 신학용 위원: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대통령비서실 조직이 움직이지 않지 않느냐는 어떤 불안감이 시중에 떠돌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대통령비서실장 김우식: 예.

신학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통치철학을 구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책 방향 제시를 주로 어디에 서 하십니까, 정책실장님?

대통령정책실장 김병준: 이미 전체적인 정책 방향은 대선 과정에서 다듬고, 특히 인수위에서 많이 다듬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국정과제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아주 거시적인 측면에서 다듬었고요, 그 이하 세부적인 것은 각 부처에서 다듬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인수위에서 앞으로 5년을 어떻게 갈 것이다라고 그런 그 맵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앓고 있습니다.

예문 ① 문장 중 “왜냐하면 이렇게 각……”에 호응하는 말은 무엇인가? 없다. 발언자는 어떤 말을 하려다가 이를 취소하고 다른 말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문장에서는 없어도 의미 전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말이다.

예문 ②도 마찬가지다. 정책실장의 답변 중 처음 시작하는 말 ‘동북아’에 호응하는 어휘를 찾아보라. 역시 없다. 그 이유는 ‘동북아’라는 말로 답변을 시작하려다가 이를 바꾸어 다른 말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동북아’라는 말을 살려 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문 ③에서 신학용 위원은 비서실장의 “예”라는 답변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 는” 하면서 어떤 말을 하려다가 이를 바꾸어 다른 질의로 넘어가고 있다. 이 구절

은 그의 질의에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지 않으며 나머지 본문 내용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본문 내용과는 상관없는, ‘하려다가 그만둔 말’ 또한 구태여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없다. 이런 것 역시 걸러내야 할 군더더기들이다.

3. 의도적 반복과 무의식적 반복을 구별하자

- ① 본 의원은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가 소비 촉진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소비가 미덕이고 소비가 애국이라는 점을 널리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② 북한의 변화를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 그것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검증 방법, 그것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③ 지금 신정부의 노사정책이 불법 파업을 하여도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신정부의 노사정책 방향입니까?
- ④ 모두에서 설명했듯이 예산처가 어떤 국가 발전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든지 예산을 적절히 배분한다는 것은 예산처에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예문 ①에서는 ‘소비’란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문장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같은 단어를 중복 사용한 강조법이요, 문법적으로도 완벽하기 때문이다. 예문 ②에서는 앞말을 받는 대명사 ‘그것을’이란 어휘가 두 번이나 사용되었다. 이것 또한 앞말을 강조하려는 의도적 반복이요, 문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법적으로는 부자연스럽더라도 말한 그대로 살려 주어야 한다. 그러나 예문 ③과 ④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③에서는 ‘신정부의 노사정책’이란 말이 반복된다. 그 문장 구조를 정리해 보자.

→ 지금 신정부의 노사정책이 ~ 신정부의 노사정책 방향입니까?

문장이 얼마나 어색한가. 이렇게 문체와 관계없는, 무의식적 반복에 의한 중복은 문법에 맞게 정리해 주는 것이 좋다.

→ 지금 불법 파업을 하여도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신정부의 노사정책 방향입니까?

예문 ④ 또한 마찬가지로. ‘예산처가 / 예산처에서’ 각기 조사는 다르게 쓰였지만 둘 다 주격조사로서 의미에는 큰 차이가 없다. 문체와도 관련이 없다. 이런 문장도 중복으로 간주하여 정리해 주면 의미 전달이 보다 명료해진다.

→ 모두에서 설명했듯이 어떤 국가 발전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 하든지 예산을 적절히 배분한다는 것은 예산처에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⑤ 바로 그 98년 4월에 미국으로부터 김대중 정부가 북의 핵 개발 실험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 비용으로 북에 현금 등 자금을 제공할 경우에 그 돈이 핵 개발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명목으로 현금 등 자금을 북한에 제공해서 북의 핵 개발을 지원했다는 극단적인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위 예문은 중복 발언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안 될 필요성을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 발언 의도와는 달리 커다란 오류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 개발 비용으로 북에 현금 등 자금을 제공할 경우에”

이 얼마나 큰일 날 소리인가. 북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핵 개발 비용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발언자도 그런 의미로 발언한 것은 아니다. 우선 문장부호부터 챙겨 보자.

→ 바로 그 98년 4월에 미국으로부터 김대중 정부가 북의 핵 개발 실험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 비용으로…… 북에 현금 등 자금을 제공할 경우에 그 돈이 핵 개발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략)–

문장부호를 챙기고 보니, 어휘가 중복된 이유가 짐작된다. “핵 개발 비용으로……”라고 말한 후에 발언자는 그 앞에 추가해야 할 말이 생각났다. 그래서 하던 말을 중단하고 그 말을 추가한 후 다시 중단했던 말을 언급하면서 발언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특별한 의도 없이 중복된 말은 당연히 문법에 맞게 정리해 주어야 할 것이다.

→ –(전략)– 북에 현금 등 자금을 제공할 경우에 그 돈이 핵 개발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략)–

⑥ ‘과거사 청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나라당에서는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과거 역사를 왜 자꾸 들추어내려고 하느냐’……, 저는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과거, E. H. Carr도 이야기했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예문은 다중 중복이다. 먼저 “저는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에서 발언자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역사인가? 아니다.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역사’는 뒤에 나와야 할 말이 먼저 나온 것뿐이다. 의미 없는 중복이다.

다음에 “역사는 과거, E. H. Carr도 이야기했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에서 발언자는 ‘역사는 과거’란 말을 꺼낸 후 그 말이 역사학자 E. H. Carr의 말을 인용하는 것임을 밝히고 싶어졌다. 그래서 “E. H. Carr도 이야

기했지만”이란 말을 끼워 넣는다. 그러다 보니 이어지는 말에서 ‘과거’란 말이 또 중복이 된다. 이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

→ ‘과거사 청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나라당에서는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과거 역사를 왜 자꾸 들추어내려고 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E. H. Carr도 이야기했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더더기 말이나 중복된 말을 정리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본회의나 청문회 같은 데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토론이나 질의응답 중에 오가는 말은 군더더기나 중복된 말이라도 삭제보다는 되도록 살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⑦ 그런데 통일부가 지금 말입니다. 북한 형법에 관해서 최근 자료를 지금 하도 입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지금 말입니다.”

마치 하나의 완결된 문장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중복된 말이요, ‘말입니다.’는 군더더기다. 걸러 내도 내용 전달에는 상관없는 말들이다. 그러나 발언자가 ‘지금’이란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말일 수도 있다. 물론, 이때 의도적이나, 무의식적이나 하는 판단은 속기사의 몫이다. 의도적이라고 판단될 때나, 판단을 내리기가 미묘할 정도로 정치적인 발언일 때는 말한 그대로 살려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때에는 문장부호로서 끼어든 말임을 드러내 줄 필요가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이다.

→ 그런데 통일부가, 지금 말입니다, 북한 형법에 관해서 최근 자료를 지금 하

나도 입수 못 하고 있습니다.

4. 고쳐 말한 것은 잘못 말한 부분을 걸러 내자

- ① 이상으로 의사를 종결하고,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 ② 정부의 시장 개입이 외환 위기에서 회복될, 회복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바로 오늘 IMF 스태프 리포트에서 발표했습니다.

속기록에서 실수는 실수 그대로 기록한다. 그러나 때로는 발언자가 발언 즉시 자신의 실수를 인지하고 이를 고쳐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굳이 실수한 부분까지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없다.

“의사를 종결하고” 사회자는 실수를 인지하고 즉시 고쳐 말했다. “토론을 종결하고”라고. 여기서 “의사를 종결하고”는 문맥상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다. 내용 이해에 방해만 될 뿐이다. 이렇게 잘못 말한 부분은 걸러 내도록 하자. 고쳐 말한 부분만 기록해 주는 것이 문법적으로도 자연스럽다.

→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예문 ② 역시 마찬가지다. ‘회복될’은 문맥상 삭제해 버려야 한다.

→ 정부의 시장 개입이 외환 위기에서 회복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후략)–

- ③ 식품과 관련돼서 관련된 부처가 7개 부처입니다. 확대하면 8개 부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측면도 있고요,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말하는 그대로 기록해 놓았다. 거기다 문장부호의 남발로 웬지 지저분한 느낌마저 든다. 아래와 같이 정리해 주면 어떨까.

→ 식품과 관련된 부처가 7개 부처입니다. 확대하면 8개 부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측면도 있고요,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가? 한결 문장도 깔끔해지고 이해도 쉽게 되었다. 그런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를 의도적으로 나열한 것인지 고쳐 말한 것인지 문맥상으로는 구분이 가지 않는다. 그 판단은 음성언어를 직접 청취한 속기사의 몫이라 할 것이다.

다음 예문은 구조가 아주 복잡하다. 수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문장이다.

- ④ 조흥은행 노조 측에서는 거기에 더하여 통합은행의 은행장을 조흥은행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 달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그 부분을 끝까지…… 경영권 구성 자체에 관여하는 것은 끝까지 막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협상이 사흘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마는, 끝까지 관철해서 이 부분의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끝까지……”에서 ‘그 부분’은 무엇을 뜻하는가. ‘통합 은행장을 조흥은행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 달라는 주장’이다. 이것은 노조가 경영권 구성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그 부분을 끝까지’라고 말했다가 이를 ‘경영권 구성 자체에 관여하는 것은 끝까지’라고 고쳐 말한 것이다. 따라서 “그 부분을 끝까지……”는 구태여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없는 것이다.

→ 조흥은행 노조 측에서는 거기에 더하여 통합은행의 은행장을 조흥은행 노

조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 달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경영권 구성 자체에 관여하는 것은 끝까지 막아 가지고, -(후략)-

5. 어순의 재배열로 의미를 살리자

- ① 현재 국회 조직 내에서 제일 의원님들 입법 활동 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법 제실의 일손이 달려 가지고 빨리빨리 서비스 못 하는 것입니다.

예문에서 ‘제일’은 부사다.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단어를 수식하는 품사다. 그러면 예문에서 ‘제일’은 어느 말을 수식하는가. ‘부족한’이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수식어와 피수식어를 앞뒤에 오도록 정리해 주면 음성언어의 의미가 한결 명료하게 살아난다.

→ 현재 국회 조직 내에서 의원님들 입법 활동 하는 데 제일 부족한 부분이 ~ 이 정도의 문장이라면 굳이 수식어와 피수식어 관계를 정리해 주지 않아도 내용 이해에 문제 될 것은 없다. 그러나 이런 작업을 소홀히 할 경우 때로는 음성언어 본래의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 아래 예문을 보라.

- ② 법제실하고 입법 지원 조직을 분명히 통합하면 시너지효과도 있고 윈스톱 서비스가 가능할 것입니다. 인력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문에서 ‘분명히’는 문장 구조상 ‘통합하면’을 수식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음성언어에서는 그게 아니었다. 호흡의 휴지(休止)로 판단할 때 ‘시너지효과도 있고...’ 전체를 수식하는 말이었다.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는 그 질서가 이렇게 다르

다. 그래서 문자언어에 맞게 질서를 챙겨 주지 않으면 음성언어의 의미가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이다. ‘분명히’ 를 피수식어 앞으로 옮겨 보자.

→ 법제실하고 입법 지원 조직을 통합하면 분명히 시너지효과도 있고 윈스톱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후략)-

속기록에서 문법은 이토록 중요하다. 자칫 문법을 챙기는 일에 소홀하다 보면 의미의 변질뿐 아니라 ‘말이 안 되는 문장’ 이 나타날 때도 있다. 때로는 정반대의 문장이 되기도 하고.

- ③ 70년대식 눈으로 보면 오늘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생소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불안정해 보일 겁니다. 그러나 50년 동안 해결했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불과 약속하고 화해한 역사가 5년입니다. 5년 동안에 많은 것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과 약속하고”

이 무슨 생똥맞은 소리냐. 물론 문맥을 미루어 내용 파악은 할 수 있지만 독서 능률은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다. 예문에서 ‘불과’ 가 수식하는 용언은 어느 것인가? 그 용언을 찾아 어순을 재배열해 보자.

→ -(전략)- 이제 약속하고 화해한 역사가 불과 5년입니다.

- ④ 그중에서 9조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경직성 경비보다는 사업비를 줄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저소득 계층에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대폭 줄어드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수가 부족할 적에 세출을 줄이는 일은 다른 나라에서도 좀처럼 안 합니다. 아마 예산 편성해 보시면, 금방 느끼시겠습니까마는, 세출을 줄이기는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출을 줄이기는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출을 줄이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이라는 얘기가. 그러나 문맥으로 볼 때 이는 논리상 모순되는 말이다. 말한 그대로 문자화해 놓고 보니 그 의미가 정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 발언의 본래 의미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로 고쳐 주어야 할까? 아니다. 발언자가 사용한 어휘는 그대로 기록해 놓아야 한다. 다만, 문법을 챙겨 주면 된다. 문맥상으로는 ‘보통’이란 부사가 ‘쉬운’이라는 용언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읽어진다. 그러나 음성언어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다. 여기서 ‘보통’이 ‘쉬운’만을 수식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 - (전략) - 보통 세출을 줄이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가? 발언의 의도가 아주 분명하게 살아나지 않았는가. 음성언어의 이러한 특성을 간과하지 못할 경우 때로는 오청을 불러올 수도 있다.

⑤ 문제는 70몇 마리가 저렇게 폐사되었다 가상하더라도 우리가 차용증을만 들어 놓은 것이 있소?

고 정주영 회장이 북한으로 500여 마리의 소 떼를 보낸 적이 있다. 그때 도중에 70여 마리의 소가 죽었다. 그것은 가상이 아니라 실제의 일이었다. 예문에서 ‘가상’은 ‘가사(假使)의 오청이었다.

→ 문제는 70몇 마리가 저렇게 폐사되었다 가사 하더라도 - (후략) -

그러나 오청을 살려 놓고 보아도 문장은 부자연스럽고 얼른 이해도 되지 않는다. 여기서도 부사인 ‘가사’의 피수식어를 찾아 줄 필요가 있다.

→ 문제는 가사 70몇 마리가 저렇게 폐사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차용증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소?

수식어가 제자리를 찾으니 문장도 자연스러워지고 발언의 의도 또한 명료해졌다.

속기의 대상은 음성언어일지라도 속기록에서는 문자언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이렇게 문법에 맞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음성언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살아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음 예문은 문장 구조가 좀더 복잡하다. 주어와 서술어가 뒤엉켜 있는 경우이다.

⑥ 살인자도 판검사가 도덕성이 있을 때에는 무죄를 선포할 수 있는 아량이 있습니다.

예문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 먼저 문장부호부터 챙겨 보자.

→ 살인자도, 판검사가, 도덕성이 있을 때에는 무죄로 석방할 수 있는 아량도 있습니다.

문장부호를 챙겨 주고 보니 ‘살인자도 도덕성이 있을 때에는’ 이란 말 사이에 ‘판검사가’란 말이 끼어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장부호가 오히려 가독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여기서도 역시 문법을 챙겨 줄 필요가 있다. 먼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정리해 보자.

‘살인자도 도덕성이 있을 때에는’

‘판검사가 무죄로 석방할 수 있는’

이를 바탕으로 어순을 재배열해 보자.

→ 살인자도 도덕성이 있을 때에는 판검사가 무죄로 석방할 수 있는 아량도

있습니다.

주어와 서술어를 각기 제자리에 오게 함으로써 복잡하게 문장부호를 쟁길 필요도 없어졌고, 그 의미도 아주 분명해졌다.

그런데 다음 예문은 또 더욱 복잡해진 문장이다.

- ⑦ 동남아 지역과 교역을 하고 있는 기업체 투자 손실 환차손 그러니까 태국 바트화 폭락에 따라서 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경영 애로 사항에 대해서 혹시 국세청에서 세정 지원 방안이 있는지?

그야말로 말하는 그대로 기록해 놓은 문장이다. 무슨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우선 문장부호를 살려 음성언어를 재생해 보았다.

→ 동남아 지역과 교역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투자 손실, 환차손..., 그러니까 태국 바트화 폭락에 따라서, 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경영 애로 사항에 대해서 혹시 국세청에서 세정 지원 방안이 있는지?

이렇게 문장부호를 챙겨 놓고 보니, 예문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문자화해 놓은 것임을 대번에 알 수 있겠다. 발언자는 어떤 말을 하다가 그 앞에 앞서 부연 설명을 해야 할 말이 생각났다. 그래서 하던 말을 중단하고, 부연 설명을 한 후 다시 하려던 말을 마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발언의 의미가 살아나도록 어순을 재배열해 보자.

→ 그러니까 태국 바트화 폭락에 따라서 동남아 지역과 교역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투자 손실, 환차손, 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경영 애로 사항에 대해서 혹시 국세청에서 세정 지원 방안이 있는지?

예문에서 '그러니까'는 접속부사다. 그런데 이렇게 어순을 바로잡고 보니 접속부사로서의 역할은 없어져 버렸다. 따라서 속기록에서는 필요 없는 말이다.

→ 태국 바트화 폭락에 따라서 동남아 지역과 교역을 하고 있는 대기업 -(후략)-

- ⑧ 국가 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WTO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GATT 13조에서…… 그것의 대원칙은 각 당사국들이 합의하면 그것은 허용이 됩니다. 13조 D항입니다.

발언자는 “GATT 13조에서……”라고 말하다가 그보다 먼저 해야 할 말이 생각났다. 그 생각난 말을 한 후에 다시 “GATT 13조에서……”를 이어서 “13조 D항입니다.”란 말로 완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은 문체와는 상관이 없다. 말한 대로라는 원칙에 집착하다 보면 문장이 완성되지 못한 채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때마다 말줄임표(……)를 사용하게 되면 속기록이 지저분해지고 가독성은 떨어진다. 이때도 문법을 챙겨 주면 문장도 깔끔해지고 내용도 훨씬 명료하게 살아난다.

→ 국가 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WTO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대원칙은 각 당사국들이 합의하면 그것은 허용이 됩니다. GATT 13조 D항입니다.

6. 생략된 말을 살려 주자

- ① 실제로 제 고향이 바로 충청도 청양, 연기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요. 얼마 전에 고향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전혀 그런 행위가 그렇게 심하게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예문에서 발언자의 고향은 충청도 ‘청양과 연기’ 지역에서 멀지 않은 어느 곳

인 것 같다. 그러나 실제 의미는 그게 아니었다. 문장부호를 다시 챙겨 보자.

→ 실제로 제 고향이 바로 충청도 청양…… 연기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요, 얼마 전에 –(후략)–

문장부호를 바로 챙기고 보니 발언자의 고향은 충청도 청양이고, 청양이란 곳은 신행정도시가 들어설 연기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이란 의미다. 여기서 말줄임표(……)는 어떤 말을 생략한 것이다. 그 ‘어떤 말’을 살려 주면 어떨까?

→ 실제로 제 고향이 바로 충청도 청양입니다. 연기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요, 얼마 전에 고향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전혀 그런 행위가 그렇게 심하게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말한 대로 기록하고 문장부호만 챙겨 주어도 의미는 살아나지만, 생략된 말 ‘입니다.’를 되살리는 것이 의미 전달에는 훨씬 효과적이다.

“속기사란 잡다한 음성의 고도의 식별자(Discriminator)이며, 또한 결정자(Concluder)라야 한다. 발언자가 무엇인가 확실히 발음하지 않거나 또는 발음을 빼먹는 경우에도 속기사는 곧 그 사실을 식별, 분석하고 결정을 하여 완전한 문장으로 엮어 낼 수 있는 두뇌의 소지자라야 한다.”

전직 미 상원 속기사였던 Grant E. Perry의 말이다.¹⁾ 음성언어는 휴지(休止)와 강약 또는 몸짓이 음성을 대신할 때가 많다. 발음이 생략되는 것이다. 그것을 그대로 문자화해 놓는 것으로 일을 끝내면 예문과 같이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 속기록에서는 이를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다. 발음이 생략된 어휘를 살려 주는 것이다.

1) 速記總覽 제1집(1972, 대한속기협회 간)

② 지금 생활 체육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을 동시에 균형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엘리트 체육은 국위 선양이라든지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집중적으로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 중에서 엘리트 체육에 국고 지원되는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생활 체육에…… 못지않게 열성을 쏟고 있습니다.

음성언어는 분명히 “생활 체육에 못지않게 열성을 쏟고 있습니다.”였다. 그런데 말한 그대로 기록해 놓고 보니 이 또한 음성언어의 의미와는 정반대가 되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말없음표(……)를 사용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발언의 본 뜻이 살아난 것은 아니다. 필요한 어휘가 생략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말없음표를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음성언어의 의미를 파악해 볼 때 ‘생활 체육에’에서 ‘에’는 처소격 조사다. 그런데 다음에 ‘못지않게’라는 부사어를 만남으로써 독자들에게겐 비교격 조사로 인식이 되는 것이다. ‘못지않게’는 ‘열성을 쏟고 있습니다.’ 전체를 꾸미는 부사어다. 그래서 위치를 이동할 만한 자리도 마땅치 않다. 이때에도 발음이 생략된 어휘를 찾아내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못지않게’ 앞에 생략된 말은 무엇인가? ‘엘리트 체육에’다.

→ - (전략) - 실질적으로 국가와 자치단체에서는 생활 체육에, 엘리트 체육에 못지않게, 열성을 쏟고 있습니다.

만약 반점을 활용하여 끼어든 말로 처리한 것이 내키지 않는다면 어순의 재배열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 - (전략) - 실질적으로 국가와 자치단체에서는 엘리트 체육에 못지않게 생활 체육에 열성을 쏟고 있습니다.

7. 말한 대로와 문법

지금까지 이 글을 읽으면서 좀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들은 반문할 것이다. 아니, 말한 대로 기록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더니 문법을 챙기라면서 문장을 뒤바꾸어 놓는 것은 또 뭐냐고.

속기록은 말한 대로 기록해야 한다. 거짓말을 정말로, 무식한 말을 유식한 말로, 실수한 말을 실수하지 않은 말로, 부적합한 용어를 보다 적합한 용어로 바로 잡아 주는 것은 속기사의 월권이다. 또한, 발언자가 발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강조법이나 발언자 특유의 어투에도 손을 대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문체와 깊은 관련이 있고, 문체에 따라 뉘앙스가 달라지고, 호소력이나 설득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발언자가 음성언어에 실어서 나타내고자 했던 의도를 속기사는 문자언어에 실어서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수문을 하는 것이고, 그 한 가지 방법이 문법을 챙겨 주는 것이다.

‘말한 대로의 기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 의미를 다음 인용문을 통하여 같이 생각해 보자.

정확한 기록을 위한 기본 원칙은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 적는 것. 대통령 본인이 부탁해도 일단 내뱉은 말은 고쳐 주지 않는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 때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을 맞이해 베푼 국빈 만찬장에서 축사를 하던 포드 대통령은 이집트를 이스라엘로 착각. ‘우리의 우방 이스라엘’로 부르는 실수를 범했다. 당황한 대통령은 이튿날 정정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대통령의 청탁을 면전에서 거절할 수 없었던 설리번 씨는 알겠다고 말하곤 속기록에는 실수한 그대로 적었다.

대통령 보좌진에서 자기들 실수로 틀린 기록을 고쳐 달라고 청탁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부시 대통령 때의 일이다. 연설문 작성자의 실수로 대통령이 인용한 통계숫자가 틀린 사건이 발생했다. 나쁜 기록은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 인지상정. 작성자가 바로잡아 달라고 간청했다. 설리번 씨는 평소 접촉하는 부대변인을 찾아가 상의했다. 그러나 그의 의견도 마찬가지로였다. 대통령이 말한 대로 기록하자는 것이었다.²⁾

필자는 처음 이 글을 접했을 때 강한 거부감부터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발언상의 명백한 오류를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면 어찌란 말인가.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하란 말인가. 명백한 오류는 고쳐 주어야 한다는, 우리의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얘기였다. 필자는 이 글을 이미 읽었으면서도 2002년도 속기협회에서 발간한 《속기연구논문집》에서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오류는 반드시 고쳐 주어야 함을 역설한 바도 있었다. 명백한 오류까지도 말한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도 되지 않았고, 도무지 동의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의 예문을 다시 찾아보았다.

- ① 정말 위험한 곳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데서 단속을 해야 되고, 무인카메라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역구에 가기 위해서 김해공항을 갑니다. 발산동에서 김해공항 가는 쪽을 보면 옛날에 비상활주로로 쓰기 위한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저는 그 도로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공항로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 넓은 도로에 무인단속카메라 기준이 시속 60km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 미국에도 史官 있다(신동아, 1997. 7월 호)

② 이번 방북단의 성격이 범민련이나 한총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지난날 국가보안법 개정을 반대하고, 미군철수를 외치고, 이북의 여러 가지 구호를 그대로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내면 그런 돌출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안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법무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위 예문들에서 우리의 업무 방식대로 하자면 ①에서 ‘김해공항’은 ‘김포공항’으로, ②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을 반대하고’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로 고쳐 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용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오늘날 선진국 의회에서는 모든 속기록이 철저히 ‘말한 대로’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Hansard』에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과학기술 시대에 있어 정교한 오디오와 비디오 장비가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면서 의회 회의록의 기록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많은 사람들이 방송과 텔레비전을 통해 의사 진행에 즉시 접함으로써 발언자들의 발언에 대한 편집과 해석의 여지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의회 회의록은 최근 들어 더욱 말한 대로 작성되고 수문은 최소한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속기록의 현실은 이처럼 단순한 이유만으로 말한 대로 기록하지는 것이 아니다. 말한 대로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전후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다음 두 예문을 보자.

③ 대통령의 사돈만 되어도 두 달 사이에 635억 원을 모을 수 있는 권력문화를 우리는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④ 계약서 한 장 쓰지 않고 두 달 만에 653억을 쓸어 모았다는데 신용불량자에 법인등기도 없는 민 씨를 보고 투자했겠습니까,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투자했겠습니까? 국민들은 깊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제245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시 조순형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에 나오는 두 구절이다. 임시 회의록을 검토하면서 보니 예문에서와 같이 연설문 서두에서 인용한 숫자(635억)와 결론 부분에서의 숫자(653억)가 서로 달랐다. 연설 원본을 찾아보았다. 둘 다 ‘635억’ 이었다. 그런데 영상회의록에서는 둘 다 ‘653억’ 이었다. 이것은 두 번 다 숫자를 잘못 읽었든지, 아니면 두 번 다 고쳐 읽은 것일 터. 이럴 때는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밖에 없다. 당시의 인터넷 뉴스를 찾아보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44) 씨의 ‘653억 원 모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3일 ‘653억 원의 실체는 없다’ 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 밖에도 ‘653억 원’ 이라는 액수의 기사는 수없이 많았다. 반면에 ‘635억 원’ 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조순형 의원은 연설문의 오류를 인지하고 이를 고쳐 읽은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속기록을 작성하면서 속기사 한 사람은 연설문과 대조하면서 연설문대로 챙겨 주었고, 다른 한 사람은 말한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업무 태도로 보면 전자가 바람직스럽다 하겠으나, ‘말한 대로 기록하지 않음’ 으로서 결과는 오히려 커다란 오류를 초래한 꼴이 되었다.

지난번 글에서도 이와 비슷한 예를 소개한 바가 있다. 발언상 오류(?)를 속기사가 바로잡아 주었는데, 한참 뒤에 다른 의원이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여 발언한 것이다. 그런데 속기한 사람이 서로 다르다 보니 앞에 기록한 사람은 고쳐 놓았고, 뒤에 기록한 사람은 말한 그대로를 기록으로 남겨 놓았다. 결국 속기기록상으로만 보면 뒤에 발언한 의원이 남의 발언을 왜곡 인용한 꼴이 된 것이다. 발언이 설사

잘못되었다 해도 이처럼 그 발언을 중심으로 연속적으로 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을 속기사가 인지하면 고쳐 주고, 인지하지 못하면 그대로 기록으로 남길 때 속기록 자체가 또 다른 오류를 초래하고 독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발언 내용이나 사용된 어휘에 대해 속기사의 판단이 개입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또 다른 오류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어떠한 경우에도 ‘말한 대로’의 대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연설 원고나 자료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 위 예문에서와 같이 바로 발언자가 그날 작성해 가지고 온 연설문마저 고쳐서 발언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 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중 제4조 제1항부터 제20조 제2항에 이르는 관련 조항, 그리고 제40조의 관련 조항 개정을 저는 반대합니다.

예문에서 ‘영유아보육법’은 ‘정부조직법’을 잘못 말한 것이다. 그런데 속기록의 작성·검토·편집 과정을 거치는 동안 아무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임시본이 배포된 후에야 해당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다. ‘영유아보육법’은 ‘정부조직법’을 잘못 말한 것이니 바꾸어 달라고. 이럴 경우 우리는 ‘명백히 잘못 발언한 단어나 숫자’는 고쳐 준다는 규정에 따라 그대로 고쳐 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 같은 선진국 의회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말한 그대로 기록한다. 속기록을 고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다만 그 실수가 독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주(註)를 달아 준다고 한다. 이를테면 예문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으로 읽어야 함”이라고 주를 달아 준다. ‘말한 대로’의 대원칙을 철저히 지키

면서도 독자의 이해를 돕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무식한 말을 했다고, 논리상 모순이 있다고 고민할 일이 아닌 것이다. 말한 대로만 기록하면 된다. 일단 뱉어 놓은 말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발언자의 몫인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속기록의 작성에 속기사의 판단이 전혀 개입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개입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첫째로 과연 자신의 청취가 정확했느냐 하는 것이다. 오청이야말로 속기록의 정확성을 해치는 일차적 요인이다. 둘째로는 자신이 청취한 그 음성언어의 의미가 과연 문자언어로 제대로 살아났느냐 하는 것이다. 의미가 살아나지 않았으면 살아나게 해야 한다. 그 의미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 수문이다. 수문 능력은 청취 능력과 함께 속기록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양대 축이다. 그 능력은 속기술을 익힌다고 저절로 터득되는 게 아니다. 구두점과 문법과 문체를 제대로 챙기라 함은 '정확하고 체계적인 국어 지식'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그리고 그러한 청취 능력과 수문 능력을 구비한 이들만이 진정한 의미의 '전문직 속기사' 인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과의 바람직한 관계

전주시의회 손 상 범

1. 가치관과 업무형태상의 비교분석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치관과 업무형태상의 차이로 인한 갈등에서 벗어나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공통적인 목적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이 각자의 가치관과 형태를 변화시켜야 하는바, 각각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의회 의원의 가치관과 형태

첫째,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적이고 주변적인 가치에서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문제로 관심의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출신 지역구 주민들의 기대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다음 선거 시의 당선을 위해서는 긴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래도 일단 선출되고 나면 전체주민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어떻게 보면 다음 선거에서의 당선이 의원 개인의 사익이라면 주민 전체를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공익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거로 뽑힌 자부심을 가진 의원이라면 선공후사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너무 이상적인 생각일까?

혹자는 현실을 모르는 지나친 이상주의자라는 생각이라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보다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정당당당하게 주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은 4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내에 출신지역 주민들에게도 훌륭한 의원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둘째,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이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나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격려와 칭찬을 할수 있는 여유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 간의 일상사에서도 갈등과 불화가 생기는 주요인은 상대방을 이해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고 부정하고 평가절하하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편적인 논리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관계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내가 남으로부터 대접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먼저 남을 대접해 주는 것이 지름길이다.

주민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동노력하고 있는 동반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마음가짐을 지닌 의원들로 지방의회가 채워질 때, 그 지역주민들의 행복지수는 높아질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하는 비판은 상대방이 그 비판을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수용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셋째,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양하여 수준 높은 정책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심도 있는 감시와 견제의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의원들이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격조 높은 비판과 격려가 어루러진 지방정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러한 전문성에 윤리성만 가미된다면 지방자치단체장, 주민 등 모두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다. 스스로의 가치만큼 인정받고 존중받도록 세상은 공정한 룰을 가지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치관과 형태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목표를 우선으로 하여 효과성이나 능률성의 관점에서 지방행정을 접근하는 방식에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이익이나 요구를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수렴하는 주민을 위한 행정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비밀주의나 폐쇄성을 배격하고 투명하게 열린 행정을 통하여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비판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다.

행정기관 내부로 수렴된 의원과 주민들의 건전한 비판과 의견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을 산출하는 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분출이나 이익을 수렴하고 조정하여 지방행정을 펼칠 경우 지방의회 의원들도 그러한 자치단체장

에 대해서는 건전한 비판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본연의 임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의원들의 본연의 임무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관점에 가까이 있는 정책을 보다 지역 주민들 편에 가깝게 옮겨 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원들이 여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나 기대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활동을 보다 긍정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때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대가로 생각하고 훨씬 더 큰 긍정적인 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때 지방의회 의원들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마음이 될 것이다.

2. 제도상의 바람직한 관계

1) 권한배분의 균형성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권한배분은 상호간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의 지방정부에 있어서는 양 기관 간 권한배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우월적 지위를 지니는 불균형 상태에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 첫째, 기관통합형 지방자치제도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견제권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양 기관 간의 교섭이 활발해지고 대립의 해결도 빠르며 특히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견제와 지방행정의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발동요건을 엄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그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어서 사무직원들은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들을 위하여 성실히 보좌하는 것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장의 눈치를 살피야 할 입장에 있어 사무직원들의 제한된 보좌를 받는 데 만족해야 하는 현실이다.

셋째, 영국의 경우 각계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 감사위원회가 지방정부의 회계감사를 전담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 실태를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도입을 고려해 볼만한 제도이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적절한 예산집행 등을 견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역설적으로 현재에도 권한이 약한 지방의회로부터 감사가능을 뺏어간다는 측면에서는 그 권한을 더욱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2) 건전한 정치문화조성

먼저 민주정치의 기본적 토론과 타협의 정치문화를 정착시켜 정당공천허용에 따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정치적 이념이나 소속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맹목적으로 반대한다든지, 완벽한 승리를 추구함으로써 상대방의 숨쉴공간을 다 뺏어버리는 힘의 논리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 정치문화 등은 이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것이다.

토론과 타협의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린시절부터 충분한 민주시민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호주의회의 연수국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를 방문하도록 하여 모의국회 등의 방식을 통하여 학생시설부터 토론과 타협의 정치문화를 체득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의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잘못된 정치풍토도 빨리 개선어야 한다. 잘못된 정치풍토의 결과로써 지방의회 내에서 뿐 아니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에도 건전한 견제와 비판이 사라져 버리면, 이것은 양 기관 간 갈등이 문제점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칫 하면 지방자치의 근본이 흔들리게 된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갈등의 요인을 극복하고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만을 위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지방자치의 주역인 지역주민들의 확고한 주인정신을 가지고 지방의 정치 및 행정에 보다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스스로가 챙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2005년 속기협회 학술세미나를 돌아보며

최 윤 정

대한속기협회 사업부장을 맡고 첫 사업인 2005년도 학술세미나를 정신없이 준비했지만 좌절을 겪은 게 벌써 1년 전이다. 정말 쓴살같다는 표현이 실감난다. 그
게 벌써 1년 전이라니.....

사업부장 자리를 물러나 이렇게 한발 물러서서 보니 지난 일에 대해서는 유구 무언이오, 지금의 마음은 시원섭섭하다. 조금씩 발전해 가는 사업부장의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시행착오만을 겪고 떠나온 듯하여 송구하기 그지없지만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이었고 어쨌든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 참 다행스럽다.

나의 변변찮은 기억력을 되살려 작년을 꺼내 보면,

사업이사와 함께 세미나 날짜를 정하고 첫 사업의 성공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행사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오락가락하던 비가 쏟아지고 말았다. 그저 '잘되겠지' 하는 믿음에 기대어 무모하게 일을 진행한 탓에 속기협회 가족



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거리(에어컨인 줄 알고 온풍기를 돌린 것 등등)를 선물했다.

학술세미나는 욕심보다 최악의 상황까지 미리 예상하고 빈틈없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1년에 한 번뿐인 속기인들이 하나가 되는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했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처음 구성된 사업부의 시나리오는 최상의 것, 오직 하나였던 것 같다.

- * 장 소 : 일상적인 콘도미니엄에서의 행사에서 벗어나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몽산포의 한 리조트 바닷가(아실지 모르겠지만 초대라는 드라마에서 이영애와 김상경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든 그곳)
- * 세미나 : 강의실은 좁고 칙칙하지만 훌륭한 강사들의 멋진 진행으로 장소의 한계를 극복
- * 저녁 : 바닷가에 멋진 야외 뷔페를 준비하여 협회인들 모두 맛있는 저녁 식사
- * 여 흥 : 돈을 좀 쓰더라도 전문 진행자를 불러 어렵고 힘들게 모인 협회가 족들과 허물없이 즐길 수 있는 시간



* 마무리 : 파도소리를 들으며 밤
하늘의 별을 세다 지
치면 잠이 든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진행한 세
미나가 실제로는,

오락가락하는 비 때문에 을씨년스
러웠던 몽산포리조트, 비오기 직전이라 눅눅하고 후덥지근했던 강의실, 강의시
간에 늦은 강사,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야외에 준비했던 만찬 테이블과 급한
철수, 편의시설 부재로 겪은 어려움 등등……

아~! 정말 다시 돌이켜 보니 그때의 그 긴장감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 같다.
(π.π)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속기협회 회원들에게는 추억의 2005년 세미나였기
를 바라는 야무진 꿈을 꾸게 되는 것은 왜일까?

지금 나는 국회사무처 속기사가 아니다. 금융감독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기록
연구사로 근무하면서 모든 일이 힘에 부치고 어렵지만 ‘최윤정’이라는 내 이름의
무게보다 ‘전직 국회 속기사’라는 타이틀이 더욱더 나를 바로 서게 한다.

다시 한번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죄송한 마음과 지금쯤 2006년 학술세미
나를 준비하고 있을 사업이사와 신입 사업부장에게 파이팅을 함께 보낸다.

겨울 나무에서 봄나무에를

시인 황지우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3도
 영하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장비의 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받은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 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5도 영상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러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

인터넷 유머 모음

최혜련



[망사지갑]

지갑을 파는 노점상 앞에 서울 부부와 어느 경상도 부부가 나란히 서 있었다.

서울 부부의 부인이 말했다.

“자기야, 겨울도 지났고 지갑이 두껍구 무거워서 그러는데, 저 망사 지갑 하나만 사줘~ 응?”

그러자 남편이,

“그래, 자기가 가지고 싶다면 사야지~”라며 지갑을 샀다.

옆에서 부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던 경상도 부인,

“지도예, 겨울 지갑이라서 무거븐데 망사지갑 하나 사주이소~”라며 한껏 애교를 떨었다.

그러자 묵묵히 있던 경상도 남편 왈,

·
·
·

“와, 돈이 덩다카드나!!”



[사오정 신병] “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한 신병이 자대 배치를 받고 내무반에 들어갔다.

그날 밤 배가 고팠던 고참 병장이 신병에게 부탁을 했다.

“컵라면 물 넣어와.”

한 30분이 훨씬 지나 돌아온 신병. 그런데 들고 갔던 컵라면이 보이지 않았다.

신병은 고참 병장에게 잔돈 500원을 돌려주면서 자랑스럽게 말했다.

“물러 왔습니다!”

또 다른 어느 날, 소대장이 들어와 야근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야근?”

이때 신병이 나서서 대답했다.

“예, 우리 소대에 약은 배치돼 있지 않습니다.”



[매표의혹]

선거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농부가 연행되었다.

“당신 표를 팔았지요?” 하고 검사가 물었다.

“천만이에요. 난 그 사람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찍어줬을 뿐이라고요” 라고 농부는 항변했다.

“그 사람으로부터 10달러를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검사가 말했다.

“글쎄올시다.”

농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당당하게 말했다.

“누군가가 나에게 10달러를 준다면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게 뻔한 이치

아닌가요?”



[생산적인 아이디어?] “말장난의 허무...”

고전하고 있는 회사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경비절감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라면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에게는 10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했다.

1등상 하나는 총명한 젊은 사원에게로 돌아갔는데 그는 앞으로는 상금 액수를 50만 원로 줄이자고 했다.





제45차 INTERSTENO 총회 참가보고

국 제 부



총회장소인 스쿨센터 안에서 Marlis Kulb 의장과 함께.

1. 기 간 : 2005. 7. 23(토) ~ 7. 29(금)
2. 장 소 : 오스트리아 비엔나 Hans Mandl Berufsschule 스쿨센터
3. 한국대표 : 박정호 단장(협회 이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입법조사관)
 이경식(협회 이사, 국회 속기2과장) - 자비 부담
 이순영(협회 국제이사, 국회 속기과 사무관)
 홍기표(협회 회원, 국회)
 황은화(협회 회원, 국회)
 이봉선(협회 재정부장, 국회)

4. 참가국 및 참가인원

- 29개국 500여 명 참가.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독일 · 멕시코 · 미국 · 벨기에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싱가포르 · 아르헨티나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영국 · 오스트리아 · 우크라이나 · 이탈리아 · 인도 · 일본 · 중국 · 체코 · 탄자니아 · 터키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한국 · 헝가리 · 호주.

5. INTERSTENO 총회 일정

- 7. 22(금) : 총회 집행부 사무실 오픈.

- 7. 23(토) : 중앙위원회 미팅.

총회 오픈.

- 7. 24(일) : 의회속기사부(IPRS) 회의

속기경기대회 참관

• 타자 및 PC 세계챔피언대회

• 시각장애인 타자경기대회

• 속기 빠른 번문 대회

• 다국어 속기경기대회

- 7. 25(월) : 속기경기대회 참관(계속)

• 속기 세계챔피언대회

- 7. 26(화) : 강연

- 7. 27(수) : 강연

중앙위원회 미팅

- 7. 28(목) : 오스트리아의회 방문

속기경기대회 시상식



- 7. 29(금) : 관광

6. INTERSTENO 총회 행사 내용

- Openning 행사 (7. 23)

참가자들이 전통의상을 입고 각국 언어로 인사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총회 개막행사, 그리고 우승자 시상식을 위해 스킨센터에 들어갈 때 참가자들을 환영해 주었던 거리의 악사.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훌륭한 아이디어.

- 속기경기대회 참관 (7. 24 ~ 25)

속기경기대회에서는 14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가한 독일팀이 탁월한 실력을 나타냄.

13개 언어(독일어, 덴마크어, 영어, 에스페란토어, 핀란드어, 불어, 인터링구아, 이탈리아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체코어)에서 성공적으로 속기를 한 Dr. Boris Neubauer가 다국어 속기경기대회에서 우승하였고, Dr. Bernhard Gremmer는 타자 및 PC 부문 세계 챔피언이 되었으며 다국어 경기대회에서도 준우승을 거둠. Peter Bruhn은 지난 대회에 이어 서신과 의사록 작성

부문에서 우수.



각국 참가자들의 경기대회 준비하는 모습

- 강연과 발표 (7. 26 ~ 27)

강연과 발표는 독일연방의회 속기업무 책임자인 Dr. Wolfgang Behm에 의해 주도됨.

독일 측에서는 Gregor Keller가 [인터스테노 50년, 성공적인 역사, 미래를 위한 토대]에 관하여 강연하였으며, Dr. Neubauer와 Matthias Kuhn이 [컴퓨터를 사용한 속기술 형성에 관하여 발표하였음. 영어와 독일어로 동시에 통역되었던 이 강연 들은 출판이 예정되어 있다고 함.

- 중앙위원회 (7. 23, 27)

1) 보 고

오스트리아 Marlis Kulb 의장과 벨기에 Danny Devriendt 사무총장의 보고
독일 Gregor Keller의 회계감사위원회 보고.



2) 정관 개정을 위한 제안과 새로운 국가그룹과 개별회원 수용 문제는 개별회원을 위한 회비 책정 문제와 함께 반대 의견 표명 없이 승인됨.

3) 차기 총회 개최지 및 시기 결정

개최지 : 체코 프라하

시 기 : 2007. 7. 21 ~ 27

4) 신임 의장 선출

현 의장인 오스트리아의 Marlis Kulb은 명예의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체코의 Jaroslav

Zaviacic이 신임 의장으로 선출됨.

– 오스트리아의회 방문 (7. 28)

약 65명의 의회속기사와 기타 프리랜서 속기사가 오스트리아의회를 방문.

Ms. Gradischnik는 참가자들을 환영해 주었고 오스트리아의회 속기국의 업무 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 이어서 인상적인 의회건물 관광이 있었음.

– 속기경기대회 시상식 (7. 28)

- 속기 부문 세계 챔피언 : Helena Matouskova(체코)
- 타자 및 PC 부문 세계 챔피언 : Dr. Bernhard Gremmer(독일)
- 다국어 속기(시니어부) 부문 금메달 : Dr. Boris Neubauer(독일)
- 다국어 속기(시니어부) 부문 은메달 : Dr. Bernhard Gremmer(독일)
- 서신 및 의사록 작성 부문 금메달 : Peter Bruhn(독일)



속기경기대회 수상자

7. 기타사항

이번 총회에서는 그동안 참여가 부진했던 중국이 18명의 대규모 인원을 참석 시킴으로써 눈길을 끌었는데, 특히 중국의 속기기계는 각국 대표단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음. 우리 대표단의 황은화 회원이 중국어에 능통한 관계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정보 교환을 약속함.



중국대표단과 함께



중국 속기기계

8. 성과 및 건의사항

- 1) 세계 각국 의회 속기업무에 관한 최근 정보의 상호 교환 및 의회속기제도에 관한 각종 연구발표 청취.
- 2) 한국의 속기현황 등을 각국 대표들에게 설명하고 향후 지속적인 자료 교환 등을 약속.
- 3) 속기 관련 국제행사인 인터스테노 총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함으로써 한국 속기계의 세계화에 기여함은 물론,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민간외교의 역할도 수행.
- 4) 그동안에는 다른 참가국들의 연구발표를 청취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연구발표 등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5) 중국·일본 대표단과의 긴밀한 의견 교환으로 지난 43차 하노버 총회 때

준비모임을 가졌던 인터스테노 아시아회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6) 어학실력 등을 닦아 현재까지 참관만 하고 있는 속기경기대회에 직접 참가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야 할 것임.
- 7) 참가경비를 국고에만 의존하기보다 부분적으로 자비 부담을 늘려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비엔나에서의 IPRS 회의

(다음 내용은 인터스테노 소식지에 실린 7월 24일 IPRS 회의 내용을 번역 정리한 글임)

홍 보 부



IPRS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

IPRS 회의가 7월 24일 일요일에 개최되었다. 19개국에서 온 약 40명의 의회속 기사들과 프리랜서 속기사들이 이 회의에 참가했다.

1. Opening

이 회의는 영국의회 속기국의 Paul Hadlow가 IPRS 의장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독일 하원 속기국장인 Dr. Wlfgana Behm의 주관하에 열렸다.

오스트리아의회 속기국장인 Ms. Brigitte Gradischnik-Schanner는 참가한 속기사들을 환영해 주었고 오스트리아의회 방문기간 동안에 오스트리아의회 속기국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 IPRS의 현황

전 네덜란드의회 속기국장이자 인터스테노 이사회 의장인 Mr. Cees Van Beurden은 IPRS가 1993년 설립된 이래 의회속기사들 간의 국제적인 교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왔지만 최근 2년여 동안 조정위원회 활동이 중단되어 왔다고 밝혔다.

IPRS는 인터스테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의회속기사들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모임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조정위원회의 임무를 임시 위임방기로 결정하였다. 그 목적은 다음 두 가지 조치를 통해 속기사들과 의회 속기국 간의 연락체계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첫째, 의회 속기국의 신기술 사용과 신규 속기사들의 채용 및 교육훈련에 대한 짧은 기사를 인터스테노 전자소식지인 인터스테노 e-news에 올릴 것이다.

둘째, 별도의 소식지가 발간되어 의회와 프리랜서 속기사들에게만 보내질 것인데 여기에는 새로운 업무방식, 신기술의 사용방법, 의회 속기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될 것이다.

3. 영국의회 속기업무 보고

● 관리자 입장

다음 연설자는 영국의회 속기국 부편집장인 Ms. Vivian Widgery였다. 그녀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영국의회 속기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속기업무에 대해서 언급했다.



영국의회 대표의 발표 모습

그동안 회의 시간이나 기록에 대한 요구는 급격하게 변화되어 왔지만 속기국의 형태와 업무방식은 지난 35년 동안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역사적으로 의회의 특별위원회 기록업무는 수세기 동안 외부 회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의회 속기국이 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권고사항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실무속기사들이 회의록에 관한 관리자의 입장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업무방식이나 훈련에 관한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속기업무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 실무속기사 입장

영국의회 속기국 실무속기사 중 한 사람인 Emma Brazier가 보충연설을 했다.

그녀는 실무속기사의 입장에서 얘기했는데, 관리자의 입장에 대한 이해 부족

으로 관리자의 보고에 대해 비판이 있어 왔음을 강조했다. 게다가 회기나 의회 상황의 불확실성 때문에 속기록의 질과 속기사들의 전문성이 위협에 처할 것이라고도 했다.

속기사들이 제기한 수많은 질문에 대한 대응으로 관리자들은 정보 제공을 시작했다. 속기사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기록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속기록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4. 네덜란드의회에서 맹인 속기사가 어떻게 일하는가?

네덜란드의회 속기국장인 Ms. Jos Hageman은 맹인 여성인 Jenny Laval이 하원 속기사로서 어떻게 업무에 임하는지를 설명했다.

그녀는 업무에 대한 철저한 훈련을 이수하였으며 맹인안내견 Ralf와 함께 회의장에 참석한다. 모든 의원들은 사전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녀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점자용으로 업데이트되어 있다. 150명의 하원 의원들과 26명의 정부 관계자의 목소리가 CD-ROM으로 녹음된다. Jenny는 문서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화된 정보가 그녀에게 전달된다. 또한 그녀의 동료가 그녀의 업무를 돕는다.

하원의장은 Jenny와 Ralf가 의회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Jenny는 그녀의 일에 만족해하고 있고 뛰어난 업무 처리 능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5. 체코의회 속기국의 현재와 미래

다음 연설자는 체코의회 속기국장인 Mr. Pavel Dibelka였다.

체코의회 속기사는 상원뿐만 아니라 하원에서도 일한다. 하원에서는 많은 회의가 개최되며 대부분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진다. 상원에서의 회의시간이 훨씬



적다. 의회 소속 속기사들의 수가 매우 적은 관계로 상·하원의 속기업무는 대부분 외부기관에 맡겨지고 있다.

Mr. Dibelka는 속기국의 업무방식을 설명했고 그녀의 큰 관심은 어떻게 신규 속기사들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체코에는 현재 단 20여 명의 속기사들이 남아 있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속기를 배우지 않는다. 체코에는 기계속기의 전통도 없고 음성을 인식하는 좋은 프로그램도 없다. 이 문제가 향후 5년 이내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Mr. Dibelka는 다른 국가의 사례 및 IPRS 회원들의 조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6. 의회속기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특별한 직업이다

마지막 연설자인 Mr. Cees Van Beurden는 의회속기사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특별한 직업이라고 강조했다.

수년 전 의회속기사가 갖추어야 했던 기술 중 하나는 빠른 속도의 속기였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속기를 하게 하고 희소가치를 갖게 했다.

그러나 빠른 속도의 속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감소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속기에 사용되면서 이 기술은 더 이상 의회속기사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 아니게 되었다. 어떤 경우 각기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속기사들이 채용되고 의회속기사가 단순 직업이 되기도 한다. 이 결과는 속기사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의회속기사의 업무가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속기사의 업무는 의원들의 말을 받아서 구어와 문어 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차이를 없애면서 원래 말한 취지를 충실하게 옮기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를 다루는 방법을 습득하는 일반교육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IPRS는 모든 속기사들의 전문성을 올바르게 세워 주고 특별한 집단에 의 소속감을 심어 주기 위해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막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7. 토 론

이러한 짧은 발표들은 전문성에 대한 흥미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영국의 회 속기국이 그렇게 공개되어 있다는 것에 감동했다.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다른 나라 속기국들도 영국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IPRS를 다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왜냐하면 최근 의회속기사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직무와 관련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제적 교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6 INTERSTENO 중앙위원회 참가신청 안내

국 제 부

세계 속기인들의 모임인 2006 INTERSTENO 중앙위원회가 터키 안탈리아에서 2006년 9월 중에 개최됩니다.

세계 속기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전문인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한국 속기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뜻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일 정 : 2006년 9월 22일~26일
- 장 소 : 터키 안탈리아
- 접 수 : 협회 국제부(☎ 788-2374 김미라)

아! 42.195Km

박 순 필

이 글은 지난 10년간 풀코스 7회, 하프코스 19회 등 50여 회 마라톤을 완주한 아마추어 마라토너로서, 국회의원사무처 속기와 박순필 씨가 1999년에 풀코스를 처음 완주했을 때의 기록입니다.
'건강'이 제1의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달리기에도 관심을 가져 보지 않겠습니까?

2500년 전 작은 도시국가 아테네가 마라톤 벌에서 벌인 페르시아 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아테네의 한 병사가 아테네 성문 앞까지 쉬지 않고 달려와 “우리는 이겼노라!”는 승전보를 시민들에게 전하고 숨을 거두었다는 마라톤에 대한 유래가 있다. 마라톤 벌에서 아테네 성문까지의 거리가 대략 40여 km였다 한다. 백오리길, 결코 짧지 않은 거리이며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거리라고도 한다.

‘마라톤’ 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보아 온 교과서에 실린 낡은 흑백사진,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올림픽에서의 쩡그린 얼굴 표정의 골인 장면과 일장기를 달고 월계관을 쓴 채 서 있는 모습을 쉽게 연상할 수 있다.

그는 이미 스포츠 스타로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영웅으로 각인되어 있지만 그 흑백의 이미지는 어렸던 우리들에게 ‘언젠가는 나도 고독한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마라톤을 한번 해 보겠다’는 잠재의식을 배태시키지 않았을까?

그러한 잠재의식 내지는 민족의식이 황영조, 이봉주로 이어지는 마라톤 강국으로서 우리나라 마라톤의 명성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는 아마추어 마라톤 붐이 일어 시합이 아닌 건강달리기 위주의 각종 마라톤대회가 우리나라만 해도 전국적으로 1년에 250여 개가 열릴 만큼 성황을 이루고 있다.

1998년 춘천국제마라톤대회 하프코스(21.0975km)에 처음 출전하였는데 그때만 해도 고작 20여 개 대회였는데 그동안 마라톤 인구가 늘어 대폭 활성화되었다.

처음 하프코스에 도전했을 때에는 기록은 커녕 완주나 다 할 수 있을까 걱정하였는데 기대 이상의 좋은 시간대(1시간47분)에 완주하고 나서 하도 스스로 대견하고 성취감에 들떠서 조선일보 인터넷

에 장황하게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제하의 완주기를 올렸는데 생각보다 접속건수는 꽤 많았다.

그 완주기 말미에 “내년에는 풀코스를 완주하겠다”는 다짐을 공언하였다. 그 약속이 은근히 부담이 되는 가운데 1년간 시간 나는 대로 아침 일찍 달리기에 열중하였다.

특히 춘천대회 직전 1개월가량은 하루 약10km 정도, 한달 300km 정도의 훈련으로 대비하였는데 아직 풀코스 42.195km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자신감이 서지 않았다.

주최측에서 정한 제한시간은 5시간, 그 시간대에 완주해 내느냐, 아니면 도중하차하느냐, 작년에 하프코스를 1시간 47분에 완주했다고 해서 산술적으로 그 두 배의 시간 내에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고 과연 어떠한 페이스로 풀코스를 조절해서 완주할 것인가?

다행히 주최측에서는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풀코스 경험이 많고 노련한 주자들을 미리 선정하여 시간대별 Pace Maker로 3:00:00PM, 3:30:00PM, 4:00:00PM, 4:30:00PM등을 배치하여 러너들의 적절한 페이스를 유도해 주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어서 페이스 조절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매우 뛰어난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한다. 나의 경우 아무래도 4시간 30분 안에 들어오면 잘하는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4:30:00 페이스메이커에 페이스를 맞추고 레이스를 하였다.

춘천코스는 공설운동장을 출발하여 의암호수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코스인데 국내의 마라톤코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코스다. 주로에 자동차가 없으니 공기가 맑은 것은 물론이고 레이스 도중 내내 거울 같은 호수, 거기에 비치는 산 그림자 하며, 연도에 들국화 무더기, 코스모스 행렬이 이어지는 전원 풍경..... 지루하고 힘든 레이스를 훨씬 가볍게 한다.

하지만 풍경은 풍경이고 출발 15km 쯤에서 첫 번째 고비- 왼쪽 종아리의 통증, 그리고 두 번째- 27km 조금 지나서 오른쪽 무릎 관절의 통증을 느끼면서 '아, 괜히 풀코스를 신청했나, 하프코스를 선택했다라면 벌써 레이스가 끝났을 텐데' 하는 후회도 했지만 준비해 간 침으로 백회혈에 두 방울 콧고, 중간 급수대에서 물도 마시고, 간식으로 바나나와 초콜릿도 공급을 받으면서 레이스를 계속하였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주로에 인접한 동네 춘천시민들의 물 대접 등 따뜻한 환호와 북, 장구, 팽과리를 동원한 사물놀이 응원은 눈물겨울 정도로 달리기에 지친 우리들의 사기를 북돋우기에 충분하였다. 그러한 응원의 덕분일까. 얼마쯤 내달렸을까 예상보다 빠르게 4:00:00PM과 조우하고 급기야 끝인 4km 전방 소양교위를 달릴 즈음에서는 그들을 추월하기까지 하였다. 이대로라면 4시간 안에 끝인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기운이 솟았다.

그러나 그 기분이 지나쳤을까. 소양교 위에서 4:00:00PM을 자원

봉사로 뛰는 99뉴욕마라톤 3-sub 완주자이자 여수마라톤클럽 회장인 김종생 씨에게 “스퍼트를 한다면 어디쯤에서 해야 좋을까?” 했더니 “지금 해도 괜찮다” 하였다. 그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믿고 스퍼트를 시작했다. 그러나 웬걸 불과 1km 정도 스피드를 냈을까 온몸에 기운이 소진되면서 도무지 뛰고 싶은 의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스퍼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막판 몸조심을 하면서 페이스를 지켜야 했는데 만용을 부린 결과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조심하고 경계하라던 over pace에 걸린 것일까. 여기가 바로 ‘마의 39km지점’ - 페이스가 급격히 떨어지고 정신마저 혼미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마지막까지 꼭 뛰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거의 기계적으로 팔다리를 휘저을 뿐 좀처럼 거리가 좁혀지는 것 같지가 않았다.

이것이 나의 한계인가? 결승선까지는 이제 불과 2-3km, 시간으로는 길어야 20분. “하느님 이 고비를 넘기게 해 주세요!” 기도가 절로 나왔다. 결코 여기서 꺾일 수는 없는 일이었다. 여기서 실패한다면? 출전 1주일 전부터 carbo-loading 식이요법(탄수화물 축적요법; 장시간 달릴 때에는 다량의 탄수화물이 칼로리원이 되므로 대회 전 며칠간은 탄수화물 섭취가 필수적이라 함)까지 신경 써 준 아내와 식사 대접 등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은 사무실 선후배님들- 여러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고통을 참고 이겨내기 위해 온갖 생각들을 동원하여 기분(기운) 전환을 시도해 보았으나 고통은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황영조 선수의 어느 인터뷰에서인가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으로 마주 오는 자동차에 뛰어들고 싶었다”는 말이 실감이 났다.

그래도 어쩔 것인가 젓 먹던 힘까지 다하여 한 발짝 한 발짝씩 전진하는 수밖에.....

마침내 눈 앞에 춘천공설운동장 메인스타디움의 펠럭이는 태극기가 보이고..... 막바지 힘이 불끈 솟았다

드디어 메인스타디움 입구에 양쪽으로 늘어선 관중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얼굴에 하얗게 말라붙은 땀 아닌 소금 덩어리를 훔쳐내며, 아! 이제 마지막 트랙 한 바퀴만 돌면 되는 거다!

결승선에서 카메라 후레쉬를 받으며 양손의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면서 나는 큰소리로 외쳤다.

“나는 이겼노라!” 고..... 마치 아테네 병사가 그랬던 것처럼.....
콜린지점의 계시판은 3시간 4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춘천에서 돌아오는 길에 대회에 같이 참가했던 국회 경위과의 김영준 선배 그리고 김재학 사장, 김광식 총경과 함께 춘천닭갈비집에서 옥수수 동동주를 한 잔 하면서 우리는 마냥 행복감에 젖어 있

었다. 네 사람 모두 走애호가이자 酒애호가인지라 “走로 쌓인 피로 酒로 풀자”며 분위기를 돋우었다. 당연히 화제는 오늘의 레이스였는데 우리를 놀라게 한 사람은 단연 김영준 선배였다. 그는 오늘 풀코스를 포함, 3주 전에 하프코스, 6주 전에 10km, 연거푸 세 번의 레이스를 강행했다고 한다.

평소 운동과 건강관리 분야에서 이론과 실기를 겸비(유도 공인 8단, 국회 테니스회 최다 우승권자, 연세대 사회교육원 운동처방·스포츠 마사지 전공)한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나이를 감안한다면 철인종의 철인이 아닐 수 없다.

완주기가 인터넷에 실리고 나서 주위의 여러 사람으로부터 “왜 뛰느냐?” “뛰면 뭐가 좋으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기에 ‘마라톤 교실-달리기 이렇게 시작하자(Beginner's Training)’ 편에 있는 ‘달리기의 10가지 장점’을 인용함으로써 답을 대신하고자 한다.

달리기는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지만 그중에 10가지의 장점을 살피보기로 하자.

1. 달리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길이다. 하루 30분, 1주일에 3일 정도면 최단 시간 내에 가장 훌륭한 수준의 건강을 이룰 수 있다.

2. 달리기는 가장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유산소운동이다. 어디에 살든 어디를 여행(출장)하든 달리기를 연습할 수 있는 장소는 있기 마련이다, 헬스클럽을 찾을 필요도 없고, 어떤 도구나 장비를 갖추실 필요도 없다.
3. 달리기는 가장 저렴하고 가장 간단하게 배울 수 있다. 자기 발에 맞는 신발 한 켤레와 입기 무난한 운동복만 있으면 그만이다. 이보다 더 이상은 필요 없다. 누구나 뛰는 법은 알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주위에서 쉽게 훈련프로그램을 입수할 수 있고 조언을 받을 수 있다.
4. 달리기는 스트레스 해소에 최선의 방법이다.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는 30분 정도만 달려 주면 희한하게도 씻은 듯이 없어진다.
5. 달리기는 어떤 체중관리 프로그램보다도 가장 뛰어난 방법이다. 달리기보다 더 빨리 칼로리를 태워 주는 운동은 없다. 미국에서 TV 토크쇼 진행자로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가 100kg이 넘는 거구를 달리기로 60kg의 날씬한 몸매로 만들고 급기야 뉴욕 마라톤 풀코스를 세 번이나 완주한 경우는 유명한 사례이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 달리기 적응훈련 프로그램”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6. 달리기는 훈련방법이 매우 유연하다.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페이스를 만들어 달릴 수 있고, 같이 달릴 수 있는 파트너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달리면 된다. 자기생활에서 '시간이 없다' '나는 달리기 체질이 아니다' 라는 핑계만 피할 수 있다면 하루에 단 30분 시간 내는 것 외에 어떤 제약도 따르지 않는 가장 유연한 훈련방법이다

7. 달리기는 기분을 매우 좋게 한다.

달리기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해 가면서 건강과 운동은 물론 자부심과 자신감도 가지게 해 준다.

8. 세계적인 선수와 어울려 땀 흘릴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여러분은 박찬호나 박세리와 어울려 경기에 참가할 기회를 갖기는 힘들다. 그러나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면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건각들과 함께 경주에 참가할 수 있다.

9. 달리기는 개인과 가족,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를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큰 대회에는 엘리트 선수를 위한 코스는 물론 일반인을 위한 마스터스대회를 마련, 풀코스, 하프코스, 10km, 5km 등 다양한 종목의 대회를 마련하여 가족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 동호인 클럽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예를 들면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 개최되는 서울마라톤클럽

주최 건강달리기 대회는 3km 코스도 마련되어 있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하면, 일산호수마라톤클럽에서는 매주 일요일 아침 동호인들이 뛰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물론 누구에게나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이와 같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자기 지역 가까운 클럽에서 같이 달리기를 할수 있다.

10. 좋은 친구를 사귄 수 있다. 한국은 물론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건강, 재미, 훈련을 위해 달리기를 하고 있다. 각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많은 동호회나 클럽이 생겨나 건강과 친목을 도모하고 있어 지역이나 직장단위의 훌륭한 친교의 장이 될수 있다.

국내외적으로 달리기 붐이 일어 춘천마라톤 외에 동아, 경향, 문화, 중앙일보마라톤 등 언론사 주관 마라톤대회 또는 직장·지역마



라톤 등 연중 250여 개 대회가 경향 각지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뉴욕, 보스턴, 베를린, 로테르담, 베이징, 런던마라톤대회 등 세계적으로 이름난 대회에 원정 가는 아마추어 마라토너들도 늘고 있다.

또한 6년 전에 발족된 '국회마라톤동호회'도 160여 명의 회원이 매주 수요일 한강변에서 훈련하고 매달 각종 대회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여러분! 달려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 몇 년 전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독일 외무장관 요시카 피서, 한국에 온 첫날 아침 마라톤 팬티차림으로 호텔을 나와 거리를 달리기 시작하자 언론이 대서특필한 적이 있다.



“그는 달리기를 통해 불과 1년 만에 37kg을 빼 110kg대의 초비만형 몸매를 70kg대의 날렵한 몸매로 변화시켰다. 내친김에 마라톤 풀코스까지 완주하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빠짐없이 10km씩 한 시간

이상을 달렸고, 아침이고 낮이고 한밤중이고 어떻게든 틈을 내어 거리로 뛰어나갔다.

그는 달리기를 통해 살만 뺀 것이 아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일종의 정신적 해탈(解脫)에 이른 상태를 ‘러너스 하이(runner’s high, running high)’라고 부른다는데, 그도 달리기를 통해 새로운 법열(法悅)을 느꼈다.

‘사람들은 1시간 정도 달리고 나면 지칠 대로 지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로 좋은 휴식이 될 수 있다… 그럴 때 머리는 명상(冥想)을 할 수 있는 평정 상태에 놓이게 된다.

바로 이때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마치 스스로 기어 나오듯 연속적으로 떠오른다.’

그는 살빼기에 성공했다기보다는 자기개조에 성공했던 것이다. 그저 달렸다기보다는 정신적 고양 속에서 소요(逍遙)했던 것이다. 살 빼자는 일념만으로는 그렇게 달릴 수 없었다. 나의 개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뼈 속 깊이 각인시켰을 때, 그는 기쁜 마음으로, 희망을 키우는 마음으로 달리고 또 달릴 수 있었던 것이다.”





내 마음의 황사

대전시의회 신 종 식

황사로 인해 온통 하늘이 잿빛으로 얼룩지고 콧속을 파고드는 황색먼지의 불쾌감이 온 신경을 어지럽게 자극한다.

언제부터 이런 계절성 행사를 치르게 된 건지, 일기예보라 하면 그저 오늘의 날씨 내일의 날씨, 비가 오겠다든지 아니면 맑음 이렇게 간단하던 것들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져 간다.

비 올 확률이 몇 퍼센트라는 예보가 귀에 익나 싶더니 이젠 황사예보에 별 상관도 없을 듯한 지구촌 날씨까지 알려 준다.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방영했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진행자가 영원한 뉴스라는 말로 시작되는 날씨 안내를 곁들여 줬던 기억이 생각난다.

물리적인 날씨만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해진 것이 아닌 것이 요즘의 세태가 돼 버렸다.

속기 하나면 뭐라도 될 것 같은 시절에 여기다 꿈을 묻고 무식하게 열심을 냈던 기억이 아스라한데 벌써 20년 가까이 가 돼 버렸으니 시간은 정말 시위를 떠난



화살인 것인가?

연필을 쥐어 가며 한 자 한 자 배우고 속도연습을 하고 이리이리해서 시험에 낙방의 쓴맛까지 두루 섭렵하고 손에 들어온 자격증과 그리고 그게 이건가 하는 허탈했던 기억, 지방의회의 개원 그리고 속기사로 살아온 시간들.

시간만 훌쩍 지난 것이 아니라 업무환경도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

처음 속기록 작성할 때는 컴퓨터는 고사하고 타자기도 볼 일이 없었던 환경에서, 그리고 그게 당연한 시절이었는데 지금 내 앞에는 책 한 권 두께의 날씨가 모니터가 딸린 컴퓨터가 일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장비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업무환경은 좋아지고 있지만 하는 일은 좀체로 줄어드는 느낌이 안 드는 건 왜일까?

컴퓨터가 없던 시절 온전히 원고지와 펜 한 자루에 매달려 번문작업 그래서 그것을 인쇄소에 넘기고 인쇄돼 온 원고 교정보고 다시 보내고 이런 지루한 일상이 그리 고달픈 줄 모르고 살았던 시절이 너무 쉽게 잊혀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누렇게 변해버린 개원회의에서 이제는 그 속을 컴퓨터가 없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CD회의록까지 변신은 끝이 없는 듯하다.

이젠 컴퓨터에 현장에서 직접 입력하는 속기방식까지 등장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현실은 참 많은 시간이 또 변화가 있었음을 실감케 해 준다.

인터넷의 발달은 그 한계를 예측할 수 없게 발전하고 있고 이런 환경은 의회 회의장면의 동영상서비스시대의 문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의회 회의장면을 누가 보고 안 보고는 차후 문제고 이런 서비스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선하는 현 시점에서 논리적으로 당위성을 따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혹자는 이제 문자화하는 회의록은 끝난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예측을 내놓기



도 한다.

지방의회 개원 후 이제까지 해 온 일이 그 정체성도 제대로 가져보지 못한 채 또 어디로 밀려가고 있는 것인가?

모든 회의를 동영상으로 저장하고 뭐 필요한 부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된다면 이전 회의장 출입하며 회의록 만드는 일 끝난 것이라고 속단하는 분위기가 있다.

무슨 일이든 현장에서 실무하는 사람들보다 주변에서 그럴 듯한 이론으로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기는 세상이지만 한편으로는 꼭 아니라고 단정해 줄 수 없으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이다.

이제까지 그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 아니면 순응 아니면 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수동적인 모습이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히 떨치고 새로운 환경을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좀더 확실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 찾기에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하나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절대로 필요한 때가, 늦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신속 · 정확, 그리고 영상회의록

서 현 숙

최근까지 “국회회의록” 하면 속기사들이 회의 현장에서 속기문자로 기록하고 그것을 한글 문자화하여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전부였던 것은 물론 회의록과 관련된 국회법 조항도 국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전체 회의 상황에 대한 영상회의록이 책자회의록과 같이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장관 등 행정부 압박용으로 자주 인용되던 책자회의록이 점점 사라지고 회의장에서 바로 이전 영상회의록 자료를 보여 주는 경우가 늘고 있고, 또 회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임시회의록이 나오기 전에 의원들이나 행정부서의 필요에 따라 회의 내용을 미리 볼 수 없느냐며 일정 부분에 대한 번문 요청이 쇄도했었는데 그 빈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동시에 제공되는 책자회의록과 영상회의록 내용이 서로 완전히 같지 않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항의 내지 의문을 제기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 시점에서 책자회의록과 영상회의록의 관계나 그 차이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요사이 속기과 인원에 비해 회의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특히 거의 모든 소위원회 회의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올 7월부터는 모든 소위원회 회의에 대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으로 국회법이 개정됨) 자연스럽게 과거에 비해 임시회의록이 발간되는 시점이 점점 더 늦어지고 있고 또 회의현장을 생생하게 다시 전달해 준다는 측면에서만 볼 때 일견 영상회의록이 더 매력적이고 실용적인 것으로 느끼는 것에 대해 마땅히 부정할 만한 대안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고 또 위기감마저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오랫동안 국회 회의 관련 기록의 전부로 여겨지던 책자회의록을 담당하며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며 생활해 왔던 속기과의 일원으로서 이대로 손놓고 시대의 흐름에 맡길 수만은 절대 없는 것이고 지금이야말로 책자회의록의 장점을 더더욱 부각시키고 또 영상회의록과의 보완관계를 모색할 때가 아닌가 한다.

회의 현장을 속기문자로 기록하여 책자회의록으로 남겨 언제든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과 카메라를 통해 영상회의록으로 남겨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책자회의록과 영상회의록의 본질이 같다는 전제하에 그 장 단점을 살펴보면,

우선, 책자회의록은 컴퓨터나 전기 등 다른 부속 장비 없이도 언제든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수별로 아니면 회기별로 제본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일종의 정보평등권 측면에서 노년층이나 어린이 등 컴퓨터를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사람들도 한글만 읽을 수 있다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회의록이 나오기까지 번문, 편집 등에 소요되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 영상회



의록의 경우는 회의 현장을 그대로 스케치해 주기 때문에 회의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시간 내지는 나중에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회의 현장의 소리와 영상을 그대로 잡다 보니 가령 마이크가 들어오지 않는 음향 사고가 난다든지 또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중단될 경우 전혀 대응능력이 없다는 최대의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회의 현장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역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책자회의록이 작성되고 또 영상회의록이 만들어지는 만큼 우선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는 방향에서 국회회의록 제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책자회의록으로만 존재하던 국회회의록에 대한 인식도 조금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우선 '신속'의 면에서 본다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의 경우 최근 들어 영상회의록과 책자회의록이 같이 제공되다 보니 내용이 침해하게 대립되지 않는 단순 현장 확인 정도의 경우 영상회의록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야 간에 침해하게 대립되거나 회의 내용이 미묘한 경우 꼭 책자회의록을 찾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모든 회의록을 다 신속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을 감안해서 회의 내용에 따라 본문 및 편집 순서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지혜가 더욱 필요하지 않나 싶다. 특히 영상회의록이 제공되지 않는 소위원회 회의록을 더욱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그다음 '정확'의 면에서 본다면 의원들은 물론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올바르게 논리적인 발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어를 잘못 사용한다든지 숫자를 잘못 말하는 등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회의록에 옮겨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내용을 틀리게 얘기한 경우나 도치



된 문장의 경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누가 보더라도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미리 배포된 보도자료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여 최대한 다듬어 주는 것이, 그러니까 수문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많은 토론과 고민이 오랜 기간 동안 속기과에서 있어 왔지만 딱 잘라서 결론을 내리기 쉬운 일은 아닌 듯하다. 거기다 최근 들어 영상회의록이 같이 제공되는 상황이다 보니 더욱 조심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다.

나 스스로의 경우를 예로 들면, 지금까지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들은 대로’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러니까 회의 내용의 전달과 역사성에 중점을 두고 의원실에서 나오는 그날의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발언 내용을 최대한 다듬고 정리하려고 노력해 왔던 입장에서 영상회의록의 등장으로 수문의 범위, 그리고 한계와 관련하여 더욱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어차피 책자회의록과 영상회의록이 공존할 운명이라면 각각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또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좀 정리해 보고자 한다.

물론 잘못 발언한 것에 대해서 꼭 속기사가 책임을 지고 고쳐 주어야 하는 것 인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는 역사성 측면에서 본다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일은 속기사의 몫이 아닌가 싶고, 또 책자회의록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오류 수정 절차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보도자료나 참고자료, 의원 사무실과의 전화 연락 등을 통해서 손쉽게 이루어져 왔지만 이제 영상회의록으로 현장이 그대로 스케치 되고 있는 만큼 오류 수정과 관련한 근거를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그 방법으로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자구정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 호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린카드제도(임시회의록이 나오기 전에 발언한 의원 사무실에서 미리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해 주는 것을 정례화한 제도)나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주 표기(오류 부분에 대해서 각주를 달아서 고쳐 주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제도에 '본래의 발언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는 근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하튼 책자회의록과 영상회의록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때로는 어느 한쪽이 더 우세하고 더 유용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생생한 현장의 전달과 정확한 기록을 통한 역사적 보존이라는 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각각의 특색에 맞는 역할을 하면서 각각 발전시키고 보완해 나간다면 더 나은 “국회회의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나의 유럽 배낭여행기

박정현

정말 나른한 3월이다.

이런 날에는 쌓여 있는 국감 원고도, 상임위원회 원고도 덮어 두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만 굴뚝같다. 먼 곳이 아니어도 좋다. 단지 코에 바람만 넣을 수 있다면 가까운 경복궁이나 덕수궁만 되어도, 단지 일상을 잊을 수 있는 곳이 기만 해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 오후다.

“음…… 정현 씨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요즘 바빠?”

멍하니 앉아 있는데 전에 같은 방에서 근무했던 선배가 말을 걸어온다. 그 소리 덕분에 반 정도만 내 몸에 걸쳐 있는 것 같던 정신이 다시 몸속으로 들어온다. 그나마 멍했던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다. 뭘지는 몰라도 일단은 이렇게 대답한다.

“아…… 예. 할 수 있는 거면 해 드려야죠.”

“다른 게 아니고, 작년에 정현 씨 유럽 여행 갔다 왔지? 그래서 얘긴데 우리 속 기계에 여행기 하나만 써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형식은 아무래도 상관없으



니까 갔다 와서 느낀 점만 써 줬으면 해……”

약간 미안하기도 하지만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 거라는 약간의 확신을 가진 말투라 딱히 거절하기도 그렇고 마침 일도 어느 정도는 끝나 있는데다 쌓인 일만 하기는 너무 지루하던 차다.

“글을 잘 못 쓰는데…… 그래도 괜찮으세요?” 하고 반 수락 반 사양을 했다.

“괜찮아. 어떤 형식이든 좋으니 한 편만 써줘.” 하고 웃으면서 일어난다.

유럽여행이라…… 그게 벌써 1년 전이다. 딱 작년 이맘때쯤 국회 직원연수 프로그램 중 배낭여행 일정을 직접 짜서 제출하고 그것이 선택되면 배낭여행을 갈 수 있는데 거기에 신청해서 유럽 배낭여행을 갔다 왔다.

국회에서 매년 시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직접 일정을 짜서 다닐 수 있는데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팀을 짤 수 있는 것이라 이 이상 좋은 기회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해 전부터 한번 신청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터였는데 마침 기회가 닿은 것이다.

신청해서 선정되는 건 거의 반 이상 형식적인 절차인 관계로 신청 팀 수에서 많이 넘지만 않으면 거의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걱정은 안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아는 사람의 자문도 받고 책도 사서 제출한 열성 끝에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준비는 꽤 순조로웠다. 마침 과 안에도 갔다 온 사람이 많았고 주변에 가이드를 했던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팀 안에도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서 나는 묻어가는 기분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 ..

우리는 일단 영국으로 들어가서 로마로 나오는 길을 택했다. 영국은 유럽 대륙과는 떨어져 있는데다 유로스타라는 대륙 간 철도를 타야 하므로 보통 유럽여행



을 시작할 때 유럽으로 들어가는 코스나 혹은 마지막 코스로 이용한다. 배낭여행자들은 비싼 유로스타 요금(편도 135 ¥)을 두 번이나 치를 수 없으니까…… ..

한참 식민지 시절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했다. 보통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미국 문화보다는 좀더 깊고 전통 있고 격식이 있을 것 같은 영국, 영국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무렵이었다. (유럽에서는 우리 저녁 무렵이라고 해도 9시쯤이다. 위도상 우리나라보다 위라 해가 늦게 진다. 하나라도 더 봐야 하는 배낭여행객들에겐 정말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공항에서 우리가 예약한 민박집까지는 지하철을 타고 약 30분 가량을 가야 했는데 야트막한 집들 사이로 간간이 보이는 푸른 숲들, 그리고 2~3층 되는 집들 높이만큼 무성하게 자란 나무들을 보며 참 살기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영국은 워낙 오래된 도시인데다 보통 집들이 100년 이상씩 되었다고 했다. 당연히 수도도 오래되고 낡아서 물도 약하게 나오고(우리가 묵었던 민박집이 욕실이 3개여서 더 심했을지도 모른다.) 건물들도 오래돼서 조그만 별채들도 가끔씩 보여서 한국처럼 쾌적하진 않다. 하지만 불편을 감내하는 전통에 대한 존중은 참

으로 대단하다 할 만하다. (보통 배낭여행을 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이 영국의 민박집은 비싸면서도 좋지 않다는 말들을 한다는 사실은 갔다 와서 알았다. ..)



런던 - 버킹검궁

워낙 영국 일정이 짧기도 했지만 두 번째 날은 무거운



배낭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루종일 유로스타 역에서 쉬기도 해서 영국에는 첫날 하루, 영국 시내밖에 다니질 못했다.

버킹검궁부터 시작해서 St. James 파크, 호스가드, 빅벤, 런던아이, 트라팔가광장 등



런던 - 타워 브리지

길이 죽이어져 있는데다 워낙 여행객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만 따라가도 길을 잃을 일은 없을 정도였다.

빅벤은 우리가 갔을 때 공사를 하는 중이라 아래 부분은 장막이 쳐져 있어서 제대로 보지는 못하고 멀리서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건물 자체의 모양이나 그 조각의 세심함이란 우리 국회의사당의 심플함과는 참으로 대조적이라 할 수 있었다. (물론 건물의 역사나 의회의 전통에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영국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타워 브리지의 야경이었다. 원래 죄수들의 감옥이었다던 런던타워 바로 옆에 있는데 그 런던타워와 어우러진 야경이 정말 감탄을 자아낼 만했다. 야트막한(감옥이라 지하 쪽이 더 깊고 넓은 것인지 성치고는 꽤나 낮았다.) 런던타워 옆으로 수직으로 서 있는 다리는 그림을 배우지 않은 나로서도 썩 괜찮은 구도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우리의 두 번째 여행지 프랑스.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볼거리는 루브르박물관과 베르사유궁전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프랑스 거리의 느낌이 좋았다. 꽤 오래됐을 것 같은 보도블록, 우



리나라처럼 겨울마다 다시 뒤집어엮는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이 깊숙이 박힌 바닥의 돌들, 그 위를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바람…… 단지 그 분위기만으로도 내 마음을 들뜨게 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았다.

영국은 그나마 영어권이라 뭔가를 사고 먹는 데 불편함이 덜했는데 프랑스어는 너무 생소해서(그 뒤로 간 나라들이 거의 그랬다.) 대화를 하는 데 애를 좀 먹긴 했지만 동행이 셋이어서 알아들은 말을 조각조각 맞춰 가며 소통이 됐던 터라 생각보다는 어렵진 않았다.

베르사유궁전은 파리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서 거의 한나절을 다 잡아야 했다. 프랑스의 궁은 영국의 궁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물론 영국의 궁전은 들어가 보지도 못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방과 그 방마다 그려진 벽화들 그리고 조각상들, 베르사유궁전의 압권이라 할 수 있는 정원…… 아마 하루종일 돌아도 다 보지 못했을 것이다.



프랑스 - 베르사유궁전

특히나 베르사유궁전을 보면서 사전에 공부를 좀더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루브르박물관을 갔었는데, 워낙 그림이나 조각 같은 미술 쪽에는 문외한인지라 '자전거나라' 라는 가이드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따라다녔는데, 그 역사적 배경이나 작가에 대한 설명들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유익했다.

물론 배낭여행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하지만 여건상 또는 성격상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참 좋았던 것 같다.

오르세미술관은 루브르와는 또 다른 현대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돼 있는 곳이었는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미술책에서 보았던 작품들은 거의 다 있는 곳이었다. 사람



프랑스 - 오르세미술관 전경

들이 왜 반 고흐, 반 고흐 하나 했었는데 직접 고흐의 작품을 보니 그 강렬함이 책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직접 보는 붓 터치와 느낌과 색감은 내가 늘 책에서 보던 그것이 아닌 것 같았다.

프랑스에서 이들을 보내고 간 곳은 스위스, 스위스는 두말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나라였다. 어떤 것을 창조하지 않고 그야말로 조물주가 만들어준 그대로를 가지고 훼손 하나 없이 살 수 있는 나라…… 그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축복을 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유럽의 지붕이라 불리는 융프라우요흐에 올라갔는데,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처녀봉 정도라 할 수 있을까……?(·_·) 융프라우요흐 역사(驛舍)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역사라 한다.

융프라우요흐에서는 운이 좋아야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운이 나빴던 탓인지 우리가 꼭대기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뭐…… 하지만 여행의 묘미란 예측불허에 있는 법…… 우리는 눈보라가 이렇게 휘몰아치는(이 무거운 몸도 앞으로 나가기가 약간 힘들 정도였다.) 꼭대기를 언제 보겠냐며 나름 좋은 경험이라 여기고 내려왔다.



스위스 - 융프라우요흐



베네치아 - 산마르코성당

융프라우요흐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는 절경은 못 봤지만 기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봤던 초원과 그림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집들, 그리고 낮게 핀 야생화들, 그리고 높이 올라가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들을 보며 역시나 스위스라는 곳은 눈과 마음을 설만한 곳이라 생각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바빠 움직이며 다녔던 우리는 스위스에서 심신의 안식을 찾을 수 있었다. 맑은 공기와 푸

른 땅 위에서 다른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나라였다.

그리고 발을 돌린 곳은 로마 쪽이었는데, 로마로 가는 길에 거쳐간 곳이 물의 도시 베네치아였다. 관광지 하면 그래도 깨끗하고 정돈돼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이번 유럽여행에서 다 깨졌는데 베네치아 역시도 내 고정관념을 깨 준 곳 중 하나였다.

위낙 유명한 곳이라 사람들이 많았던데다 선착장이라는 곳이 어쩔 수 없이 깨



뜻할 수는 없었던데다 그날 날씨 역시도 그다지 쾌청하지는 않아서 그랬는지 약간 우울한 느낌이긴 했는데, 배(바포레토)를 버스처럼 혹은 지하철처럼 대중교통 삼아 타고 다녀야 하는 특이한 경험과 산마르코성당과 두갈레 궁전을 보고 처음 받았던 그 인상이 완전히 말끔하게 날아갔던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좁아 보이는 곳에 어떻게 이런 광장이 있을 수 있는지…… (베네치아에서 골목 골목 다녔을 때는 이런 성당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그리고 엄청난 비둘기들…… 아마 사람 수만큼이나 비둘기도 많았을 것 같다.

우리의 유럽여행 마지막 일정인 로마……

로마는 유럽여행 일정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곳이었는데 길지도 않은 12일 일정의 마지막이어서 그랬는지 지치기도 해서 쉬엄쉬엄 다녔던 곳이다.

거리를 다닐 때마다 밝히는 게 유적지라 웬만한 건축물은 신기하지도 않을 지경이었는데, 로마에서는 지하철 공사조차도 함부로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워낙 묻혀 있는 유물들이 많아서 아마도 로마는 100년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모습일 거라는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의 얘기도 있었다.

우리가 묵은 곳은 테르미니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민박집이었는데 주인 아주머니의 음식 솜씨가 압권이었고(아…… 민박집을 이용하면 먹는 데서 오는 생소함은 덜 수 있다. 한인 민박집의 경우는 아침·저녁이 거의 제공되므로 집에서보다



베네치아 - 산마르코 성당



오히려 더 잘 먹고 다녔다), 시설도 괜찮아서 마지막 일정을 참 쾌적하게 보낼 수 있었다.

로마는 어떻게 말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곳이다. 정말 도시 전체가 유물관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곳곳에 있는 옛 건축물의 잔재들……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콜로세움, 그 옆에 있는 포로 로마노, 그리고 바티칸 박물관……

아, 그리고 보니 내가 제일 인상 깊었던 곳은 바티칸 박물관이었다. 실제 루브르보다 훨씬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고 미켈란젤로와 다빈치가 있었던 로마이며 카톨릭의 중심이기도 한 바티칸공국 안에 있으니 전쟁이나 외부적 혼란에서도 충분히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기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창조…… 유럽여행을 다니면서 봤던 어떤 작품 중 최고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 천장의 높이, 작품의 크기나, 구성 그리고 인물들의 생동감까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꿈쩍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나는 믿지 않았었는데 실제 그럴 수도 있다는 걸 경험한 순간이었다.

일본의 NHK에서 작품의 색을 다시 복원하는 데 스폰서를 하면서 판권을 사갔다는 대목에서 약간 씩씩하긴 했지만 워낙 명작이니까 누군가가 해도 해야 하는 일이다 싶은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며 미켈란젤로의 유일한 서명이 남겨진 조각상인 피에타상이 있는 곳…… 6만 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 규모에서 놀라고 규모만 큰 건물이 아니었다는 데 더 놀랐으며 그 안에 있는 조각이나 상징에 더욱 놀라고…… 계속 놀라기만 했던 곳 같다.

고개를 돌릴 때마다 ‘우와~’ 하는 탄성이 절로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했다. 로마를 가장 마지막 코스로 정한 것은 참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



단한 곳이었던 것 같다.

유럽여행을 다니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나라도 유럽 어느 나라 못지않게 역사도 오래되고 문화적으로도 뒤처지지 않는데 목조 건축물이 주류를 이루는 관계로 그 보존 기간이 길지 않아 참 안타깝다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사찰이 산에 있어서 항상 화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만큼 멀리 있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런 역사적 숨결을 느낄 수 없다는 것 역시도 문제이기도 하다. 관심도 없는데 ‘사랑’이나 ‘자부심’ 까지 바란다는 건 너무 큰 기대겠지……



로마 - 성베드로성당

1년 전에 다녔던 여행을 사진을 보며 회상한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고, 사진을 보면 참 재밌고 좋았었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글로 담기에는 지면도 한정되어 있는데다 글재주 역시 없어서 제대로 전달은 안 될 것 같다.

하지만 이 기회에 1년 전의 그 감동을 조금이라도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리고 마치 다시 유럽여행을 다녀온 듯한 뿌듯함을 갖게 해 줄 수 있도록 원고를 부탁한 선배님께 감사하며 이만 줄여야겠다.



『희망의 이유』를 읽고 나서

이 정 윤

나에게 속기계에 실을 원고 청탁이 들어왔다. 글재주가 없는 나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어쩔든 써보기로 했다. 그것도 아주 솔직하게...

요즘 감명 깊게 읽은 책을 하나 소개해 보라는 것이었는데 제인 구달 박사님이 쓴 『희망의 이유』라는 책이 얼른 떠올랐다.

나는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쇼 프로그램 같은 오락 프로그램을 마음껏 보기 어려웠다. 채널 선택권이 두 내외분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내가 외할머니 내외분과 재미있게 볼 수 있었던 프로그램은 BBC에서 제작한 동물 다큐멘터리였다. 난 어렸을 때 BBC 동물 다큐멘터리를 자주 접해서 나레이터 성우의 목소리가 친숙해 질 정도였다.

그런 나에게 제인 구달이라는 이름을 접하게 되자 그녀에 대해서 호기심이 발동했다. 시중에 제인 구달 박사님이 쓴 저서가 여럿 있지만 내용이 제일 무난하고 제인 구달 박사의 일대기가 주를 이루는 『희망의 이유』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은 MBC 느낌표 '책을 읽읍시다'에서 선정한 도서이기도 하다.

제인 구달 박사님은 1934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남부 해안에 있는 본머스



에서 자랐다. 어렸을 때의 제인 구달은 동물을 너무 좋아했었다고 한다. 18개월 때에는 정원에 있는 지렁이를 한 움큼 모아다가 침대 곁에 갖다 놓은 적이 있었다. 이에 제인 구달 어머니는 “제인, 지렁이를 여기에 두면 죽는단다. 흙에 있어야 돼” 라고 말하자 어린 제인 구달은 급히 지렁이를 모두 모아 뜰로 다시 아장아장 걸어나갔다고 한다.¹⁾

제인 구달이 겨우 다섯 살일 때인 1939년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성장기 시작을 세계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이 보낸 것이었다. 그녀의 집안은 기독교적 윤리와 사랑이 충만한 집이었지만 그 당시 그녀가 겪은 전쟁의 참상은 인간 본성의 두 가지 측면 친절·관대함·사랑과 고문·홀로코스트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 후 제인 구달은 어머니의 권유로 취업을 위해 비서 훈련을 받았다. 그 와중에도 아프리카에 꼭 가보겠다는 꿈을 놓지 않고 동물에 관한 책을 계속 읽었다. 19살 되던 해 제인 구달은 런던에 올라와 비서로 취업했다. 그러면서도 정식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던 그녀는 런던 경제학 대학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야간 수업 몇 개를 수강하곤 했다.

그러다 갑자기 클로라는 학창시절 친구에게 편지를 받았다. 클로라는 친구가 케냐에 있는데 한번 놀러 오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섯 달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아 아프리카로 갈 수 있었다. 아프리카로 간 후 그녀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게 된다.

아프리카에 간 제인은 유명한 고생물학자이자 인류학자인 루이스 리키를 만나게 된다. 루이스 리키 박사는 정식 학위도 없는 제인 구달에게 전폭적인 신뢰

1) 제인구달 저 『희망의 이유』24p



를 보내며 탄자니아 곰베에서 침팬지 연구를 해 보라고 권유한다. 그 당시 루이스 리키 박사가 침팬지 연구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야생 침팬지를 관찰해 보면 인간의 과거를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침팬지 연구는 편향되지 않은 개방된 마음, 지식에 대한 열정, 동물에 대한 애정, 그리고 지극한 인내심이 필요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루이스 리키는 제인 구달을 그 책임자로 본 것이었다.

1960년 여름 제인 구달은 혼자 탄자니아 곰베로 가서 야생 침팬지 연구에 착수한다. 그녀의 연구 방법은 이전의 연구 방법과 사뭇 달랐다. 그 당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무신론자여서 동물을 하나의 객관적인 연구 객체로만 바라볼 뿐이었다.²⁾

그러나 제인 구달은 숲 속에 들어가 침팬지에게 인간과 같은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각각의 침팬지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어 애정을 가지고 관찰했다. 요즘 BBC 동물 다큐멘터리 해설이나 동물 쇼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동물이 사람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하는 멘트들은 아마 제인 구달 박사로부터 나온 모양이다. 그 당시 많은 과학자들은 인간만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인간만이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침팬지들을 연구하면서 침팬지가 인간과 유사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인간과 똑같이 선한 면과 악한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플로처럼 다른 어른들과 편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단호하고 자신감 넘치는

2) 『희망의 이유』256p에 보면 침팬지를 철망에 가두어 놓고 가슴 한 부분의 털을 깎아 연구 번호를 써 놓은, 침팬지를 연구 시료로 취급하는 사진이 나온다.

3) 제인구달 저 『희망의 이유』



엄마는, 올리처럼 다른 성원들과 긴장된 관계를 맺고 있는 내성적이고 지위가 낮은 암컷보다 새끼들이 좀더 나은 출발을 하도록 해 주었다.”³⁾라든지 잔인한 집단 간 공격과 새끼 살해의 사례도 많이 목격하게 된다. 침팬지들도 인간과 똑같이 폭력과 야만성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들에게서 돌봄과 협력, 동정, 이타심의 표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한 형태도 빈번히 보게 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인간의 선악에 관한 고찰, 침팬지가 우리 인간과 유사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침팬지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과 열악한 사육시설이나 실험시설에서 끔찍한 방식으로 사육당하고 있는 침팬지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내가 이 책에서 제일 감동받았던 점은 제인 구달 박사님의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꿈에 대한 열정이었다. 같은 여자라서 그럴까? 그녀는 부유한 집안 형편도 아니었고 정규 대학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지만 꿈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고 쟁취했다. 당시는 2차 세계대전 후라 사회 분위기가 암울했을 텐데도 그녀의 낙관적인 사고, 꿈에 대한 열정을 접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런 그녀의 용기와 열정이 나는 너무 부러웠다.

요즘 경기 침체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갈등과 비관적인, 패배주의적 사고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는 사람을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든다. 이런 때일수록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갔던 제인 구달 박사님의 인생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 책이 아직은 젊은 우리들에게 청량제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35년, 어떤 의미일까?

유 점 임 기자

김 채 영

- 1971년 6월 8일 國會事務處速記課 입사
- 2006년 12월 31일 퇴직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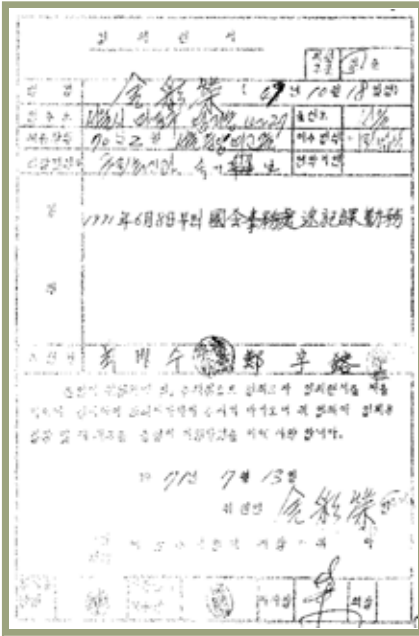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강산이 세 번 변하고도 남을 시기를 국회에서 오직 속기사의 본업에 충실했던 김채영(71년 국회사무처 입사) 선배님에게 35년이란 어떤 의미일까? 올 연말이면 속기를 인생의 동반자로 삼아 항상 우리 곁에 남아 있을 것만 같았던 선배님의 정년퇴직을 앞두고 선배님을 추억해 본다.

멀리서 작은 키에 바쁜 걸음으로 오시는 모양새만 보아도 선배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선배님은 참 바쁘게 움

직이시던 분이였다. 그래서인지 선배님에 대한 나의 첫인상은 ‘부지런하고 적극적이신 분’ 이었다. 그러던 차에 작년부턴 같은 방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자주는 아니지만 예전의 에피소드들을 접할 기회가 생겼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선배님이 입사하셨던 초창기에도 제복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유행의 침단이라고 일컫던 명동에서 고급원단으로 제복과 블라우스를 맞추고, 거기에 신발까지 한 세트를 이루었다고 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속기사가 사회적으로 대우받는 수준이 상당히 좋았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신 적도 있는데, 하긴 그때는 속기과 외에는 공채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니 그럴 만도 하겠다. 또 국회사무처 모든 일에 속기과가 없으면 일이 안 되고 심지어 속기협회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나중에 국회 체육대회의 모델이 되기도 했더니 미루어 짐작이 된다.

국회가 태평로에 있던 시절에는 2별관, 3별관, 4별관이 떨어져 있어서 희한한 일들도 많았다고 한다. 가장 생각나는 일은 비가 올 때면 우산을 쓰고 프레스센터 앞에 있는 지하도를 건너서 본회의장을 갔던 일, 또 지금보다는 차가 적었지만 시간이 촉박하면 대로변인데도 지하도 위를 뛰어가는 통에 위험천만한 일들을 겪었던 일, 회의장이나 복도에서 의원님들이 여자 속기사를 보면 신기했던지 여자 속기사도 있냐며 묻던 일, 유신 전에 있었던 국정감사에는 참여하지 못했던 일(당시에는 위원회 수가 적어서 지금처럼 모든 속기사가 동원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결



흔하면 그만둔다는 각서를 쓰고 입사하는 옷지 못할 일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의 여의도로 이사 오고 나서는 로텐다홀에서 매일 아침 차를 마셨던 일, 국회 개방 전에는 윤중로 벚꽃을 소박하게 즐겼던 일이 기억이 난다고 하시며 근무환경과 후생복지시설 등은 좋아지는 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대우나 인식이 떨어진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

또한 예전에 비하여 인원은 늘지 않고 각종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신설, 소위원회 의무 속기화 등으로 일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초창기 속기사가 가지고 있던 상호 존중하는 마음과 프라이드가 지금의 후배 속기들에게선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쉽다며 지금이야말로 선·후배는 물론 동료 상호간에 서로 이해하며 존중한다면 좀 더 나은 우리를 만들지 않겠냐는 충고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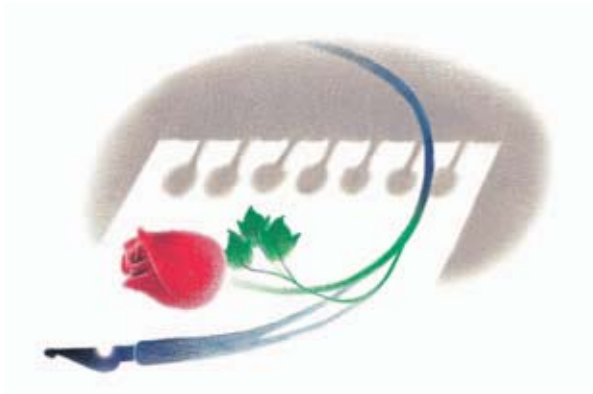
그러면서 선배님은 12월 퇴직 이후의 계획을 물어본 필자에게 현재는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아직 특별한 계획은 안 세웠다고 앞으로 여

유가 생기면 건강도 챙기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내셨다.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선배님이시라면 봉사활동도 멋지게 해 내실 거라 믿는다.

1년밖에 안 되는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선배님과 같이 근무하면서 35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는 느낄 수 없었다. 그건 아마도 사진도 없는 선배님의 빛바랜, 그것도 컴퓨터가 아닌 타자로 작성된 속기협회 입사원서에서만 느낄 수 있을 만큼 늘 가까이에서 후배를 많이 챙기고 아끼고 걱정해 주던 선배님이셨기 때문 아닐까.

선배님!!!

우리 곁을 떠나신다 하더라도 35년을 긍지와 자부심으로 무장했던 그 마음 그대로 계속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그녀들

박 윤 혜 기자

‘제42호 속기계’에서는 어느 곳을 소개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헌법재판소에 가기로 결정했다.

교과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로 헌법 제6장에 의하여 헌법재판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곳이라고 그저 막연하게 배웠지만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서 신행정수도 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등 최근 몇 년 동안 사회적인 이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언론에 자주 언급됐었기에 한 번쯤 가 보고 싶은 곳이었다. 게다가 그곳에도 우리와 같은 일을 하는 속기사가 근무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업무를 하는지, 몇 명이나 있는지 등의 궁금증도 있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방문하기로 한 날, 약속시간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헌법재판소 정문에 도착했다. 안국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헌법재판소,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그리 크지 않은 건물이었지만 웬지 모를 경건한 마음이 들었다. 사람들이 국회에 와서도 그런 마음이 들까, 잠시 이런 생각이 들었다.



헌법재판소의 청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로 15에 위치해 있는데 그 부지는 구한말 개화와 공신으로 좌의정을 지낸 박규수(1807~1876) 선생의 자택이었고 선교의사 알렌(Allen)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종합병원인 광혜원이 있었던 곳이다.

청사 건물은 상징성과 도시적 조화성을 고려하여 현대적 감각과 고전적 양식을 결합한 석조건축물로 예술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아 제2회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청사 옥상에 설치된 돔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상징하고 청사 상부의 수평 띠 3선은 헌법상의 평등사상을 뜻하며 중앙 현관 부분의 상단이 셋으로 나뉜 것은 삼권분립을 의미한다고 한다.

청사 건물을 잠시 동안 감상한 후 점심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방법원의 경우에
도 십여 명의 속기사가
있는 곳이 많기에 여러
명의 속기사가 있을 것
으로 생각했는데 2명의
속기사만이 업무를 하
고 있다는 말에 참 대단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힘들지 않느냐는 물음

에 할 만하다며 웃음으로 대답하는 그녀들을 보면서 웬
지 조용하고 엄숙할 것 같은 헌법재판소의 분위기가 느
껴졌다.

헌법재판소에는 9인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1개
의 전원재판부와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3개의 지
정재판부가 있는데 모든 재판을 속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원재판부의 재판 중 공개변론 등 요구가 있는 재판 시
에만 속기를 한다고 했다.

교대로 회의장에 들어가는 국회와는 달리 재판이 시
작하면 두 사람이 함께 재판장에 들어가 끝날 때까지 같
이 있으면서 교대로 속기를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호흡
이 중요할 텐데 96년부터 10년간랑 함께 일했으니 이제
는 서로 가족처럼 느껴질 것 같았다. 그리고 보기에도 호
흡이 잘 맞아 보였다.

재판에서 속기한 기록을 보고 싶었지만 국회처럼 기

록한 것을 회의록으로 공개하지 않고 재판 기록의 일부로 보존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볼 수 없다는 것이 좀 아쉬웠다.

서로 궁금한 것들도 물어보고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점심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렸다. 다시 업무로 복귀해야 할 시간, 우리나라에 몇 그루밖에 없는 희귀수로 알려진 수령 600여 년의 천연기념물 제8호 백송을 감상하며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앞으로 TV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광경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어딘가에 앉아 있을 그녀들의 모습을 찾게 될 것 같다.





첫 발령, 그리고 속기과

노 세 현

대한민국 국회.

일간지 정치 면에서나 볼까, TV 뉴스에서나 듣게 될까, 내 생활과는 전혀 무관한 용어다. 기껏해야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객기 어린 정치 논쟁이나 할 때 한번쯤 입에 담을지, 아니면 정치에 무관심한 나의 행적으로 보자면 평생 관심 밖의 용어다. 몇 달 전까진 그랬다.

대한민국 국회사무처 속기과.

하물며 ‘속기과’ 라니!!! 속기, 속기사.

모르는 단어는 물론 아니다. 몇 번쯤은 흘러들었겠지. 그러나 귀에 들어온 단어는 흔적을 남기지 못하고 나가 버린다.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래 몇 달 전까진 그랬다.

늦은 나이에 공무원 준비를 시작했고, 작년 여름 국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어찌나 신기한지.

맙소사! 국회라니! 우리 ‘회사’가 국회라니.

행정적으로는 특이하게 첫 발령을 속기과로 받았다. 어차

피 행정일이나 속기과 업무나 처음 접해보는 것이니 생소하기는 매한가지다. 그런데 용어가 주는 신비함의 정도는 사뭇 달랐다.

사무실에 처음 출근했을 때 컴퓨터 키보드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분명 다른 생김새의 자판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고 방 곳곳에 놓여 있는 모니터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왜 방에 TV가 많을까 이상하게 여겼다. 그리고 까만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에 조금은 주눅이 들었던 것도 같다.

정말 새로운 세계였다.

첫 발령을 받고 내가 맡은 업무는 속기사들이 작성해 온 원고를 취합해서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교정하고 전체 체제에 맞게 편집하는 일이었다. 뉴스에서만 들던 의원들의 이름이 빼곡한 회의록을 받아보고, 또 그들의 생생한 육성이 들리는 듯한 구어체로 가득한 글들을 읽어 내려가며 야릇한 희열을 맛보기도 했던 것 같다. 마치 남이 모르는 비밀의 방을 몰래 엿보는 듯한 기분이랄까. 물론, 대중에게 모두 공개되는 회의록이지만 말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속기사란 직업은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 고백하자면, 사실 그전까지 ‘속기’란 그저 누군가의 음성을 빠르게 옮겨 적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굳이 표현하자면 ‘빠른 받아쓰기’ 정도랄까. 속기사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생활하며 난 그들의 세계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의 이런 생각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깨지고 말았다.

속기사들은 순번을 짜서 회의장에 들어간다. 한 사람이 평균 10여 분 정도의 시간을 쓰고 나온다. 그런데 그 짧은 분량의 원고가 나오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처음엔 의아했다. 원고 작성하는 것을 보았다. 책상 위에 사전은 기본이고 회의와 관련된 온갖 자료가 수북이 쌓여 있고 자신이 적어온 속기 내용을 자료와 비교·확인해 가며 분주히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속도만큼 머릿속도 움직이고 있으리라.



경험 많은 속기사 한 분이 그런 말을 했다. 요즘엔 회의가 너무 많아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회의에 상정될 법안이나 의안에 대한 사전 준비운동(?)을 하고 가야 한다고, 그러지 않으면 잘못 들을 수 있다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느끼고, 그리고 아는 만큼 들리고……

속기를 단순한 빠른 받아쓰기 정도로 생각했던 나 자신의 무지가 무척이나 부끄럽게 느껴지던 순간이다. 그들은 ‘전문가’ 였다.

속기사들은 사초를 쓴다는 자부심으로 중무장한 특공대 같다. 본인들이 역사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긴 그리고 보니 우리 역사의 중요한 매 순간에는 항상 속기사가 있었다. 국회의 모든 회의에서는 물론이고 날치기로 법안이 통과되는 현장에도, 이미 역사의 한 장면이 되어버린 탄핵의 회오리 속에서도 어김없이 속기사는 있지 않았는가.

회의가 여러 개 열릴 때 속기사들은 매우 바쁘다. 정신없이 바쁠 때 한 분이 내게 농담삼아 회의장에 들어가 달라고 했다. 웃으며 “그럴까요” 대답하는데 다른 속기사 한 분이 정색을 하면서 “우리 일을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듣기 거북해.” 하신다.

장난삼아 나온 농담에 이어진 말이었지만 자기 일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그리고 내심 뜨끔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던 낱말 하나, 토씨 하나를 놓고 씨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속으로 굳이 ‘저럴 필요가 있을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넘어가지.’ 하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사초를 다루는 사관이야. 회의록이 대중 만들어지는 것은 참을 수가 없어.” 하던 고참 선배의 말은 내가 공무원을 하려던 이유는 무엇이었나, 단순히 편하고 안정적인 직장이어서가 아니었을까, 나는 내 일에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걸까…… 혼자 생각에 빠져들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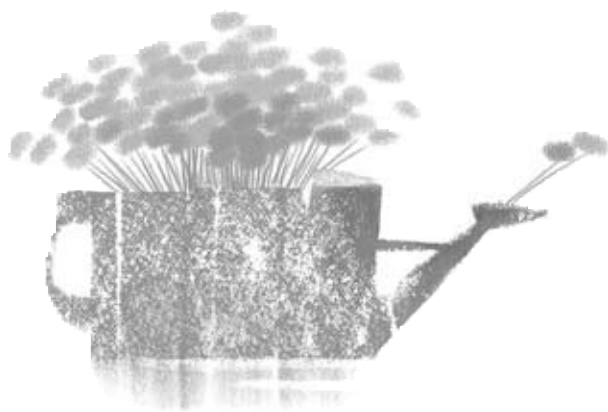
외부에서 회의록을 독촉할 때가 있다. 회의장에서 속기를 했는데 왜 사무실에

서 바쁘냐고 하는 이도 있다. 회의장만 나오면 속기사의 일이 끝났다고 믿는 그분들에게 난 기회 있을 때마다 일깨워 준다. 회의장 안에서의 10분을 위해 그들은 그 전과 그 후에 그 몇 배의 시간을 투자한다고.

이삼 년에 한 번씩 보직을 순환하는 나로서는 곧 이곳을 떠나겠지.

“첫” 자가 들어간 단어치고 가슴 벅차지 않은 단어가 몇이나 될까마는 첫 발령을 받고 만난 속기사들, 그들과 한술밥을 먹으며 느끼고 함께 한 시간은 앞으로 나의 직장 생활에 좋은 밑바탕이 되어 주리라 믿는다.

여러부~운~, 사랑해요!





다시 부르는 나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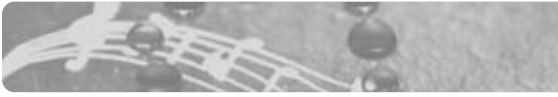
제 신 지

꾸역꾸역.. 꾸역꾸역.. 꾸역꾸역.. 계속 뭔가가 올라오려고 했다. 예상치 못했던 눈물 한 줄에 나는 적잖이 당황했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어지러움증은 마치 나를 질식사시킬 것만 같은 공포감마저 들게 했다. 마지막 한 자를 치고 서둘러 회의장을 나선 뒤 선배님의 걱정스러운 표정과 말들은 귓전 밖에서 그저 웅웅거릴 뿐.....

그 일은 이곳에 발을 디딘 뒤 정확히 3개월 뒤에 일어난 일이었다. 왠지 떠올려 하니 까마득히 먼, 마치 아침에 허무맹랑한 꿈을 꾸고 난 뒤 그 꿈을 되짚어 보는 느낌마저 든다.

스물세 살 때 처음 속기를 접하고 이듬해 바로 자격증을 따고 계획한 대로 2003년도에는 국회 속기사가 되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국회만 생각했었고 오만한 게도 그것을 당연시 했다.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는 주유소, 피자집, 오락실, 레스토랑 서빙, 국밥집 주방 보조, 백화점 판매원 등등 해 보지 않은 아르바이트가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



도였기에 워낙 몸으로 뛰어다니는 건 자신 있었던 터였다.

근무 첫날, 이제까지 담아왔던 생활 속 어느 곳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갑갑함이 엄습했지만 그저 처음이니까 그렇겠거니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아르바이트는 수틀리면, 힘들다 싶으면 때려 쳐도 그만이었지 않은가. 하지만 이곳은 그렇게 할 수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곳이었다. 3년간 피나는 내 노력의 결실이었고 첫 단추를 끼우게 된 곳이므로 적응하려고 노력을, 아니 노력이라기보다는 너무 욕심을 부렸던 듯하다.

그 당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한둘이 아니었다.

일단 회의장에서 속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곤욕이었고-우습게 들리겠지만 사람들 많은 곳에서 특히나 경직된 장소에서는 짜증부터 나는 체질이었다-어쩌다 정해진 발언자 이외의 인물을 체크해야 될 때는 거의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였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하다 싶을 만큼 의원들의 한자 이름에는 치를 떨었다. 한자를 병적으로 싫어했던 나로서는 눈에 보이는 한자가 글자가 아니라 그림이었다. 매일 매일 실수의 연발이었고 실수로 시작해서 실수로 끝이 났다. 그러다 보니 항상 긴장상태였고 머리는 멍해지더라니.

어쩌면 제일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었다.

국감을 다녀와서, 첫발부터 조심조심 내딛어도 모자랄 판이었는데 열 걸음을 한꺼번에 움직이려고 욕심을 과하게 부렸으니 실망을 넘어 급기야 "난 바보인가 보다. 나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라고 자포자기하게 되었다. 정말 그때처럼 나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졌던 적이 없었다. 거의 매일을 울었지, 아마.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열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폐결핵이 발병했다. 입사하기 얼마 전 급성폐렴에 걸린 적이 있어서 폐가 상당히 약해져 있었는데 결국은 폐결핵으로



이어져 버렸다.

도망치듯이 휴식을 했고 시골로 내려와 버렸다.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었다. 고향집에서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그러기를 석 달.

나의 고향집 앞에는 바다가 바로 펼쳐져 있다.

그럴싸한 낭만적인 바닷가가 아니라 양식장이지만 그래도 파도에 따라서 내 마음도 찰싹거리고 찰싹거리고. 해가 바뀌어서 봄이 왔을 때는 매일 산책도 하고 좋은 것, 명명탕을 몇 그릇이나 먹었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도 먹고 그렇게나 그리웠던 햇살을 마음껏 쬐이면서 마음 가는 대로 생활하다 보니 뭔가 머릿속에서 툭! 하면서 끊기는 것을 느꼈다.

마치 터널 안쪽에서 헤매다가 빛을 따라 걷다가 마침내 새로운 바깥세상을 발견한 그런 느낌, 터널 안에 갇혀 있는 것은 더 이상의 내가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빛을 향해 전진하리라는 오기가 발동했다.

본래의 나는 무엇이었을까?

객기 넘치고 오만하다는 말을 들을지언정 자신감 하나 남부럽지 않은 나는 터널을 걸어 나오는 데 성공했다.

여름이 끝나 갈 무렵, 폐결핵 완치라는 유쾌한 소식을 접했을 때 나는 돌아온 자신감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 비겁하게 도망치는 것은 단 한 번으로 족했기에.

2005년 1월 10일, 나는 돌아왔다.

너무도 따뜻하게 반겨주는 선배님과 동기들 덕분이었을까? 다시 찾은 이곳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내 자리가 있다는 것이 기쁘고 돌아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처음에 느꼈던 그 중압감과 압박감은 사라졌고 일을 즐길 수 있을 만큼 몸과 마음이 달라지고 있었다. 어찌면, 나는 그때 처음 접하는 '조직'



에 심한 몸살을 앓았었나 보다. 회의장은 곧 생활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모르니까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어느새 남에게 ‘나’를 보여주는 데도 익숙해지고 있었다. 힘들게만 느껴지던 인사도 이제는 실실 웃음을 흘리며 인사할 수 있게 됐다. 아아~~, 이런 뻘뻘한 “신지” 같으니라고.

웃으면서 인사하면 웃음으로 답한다. 웃고 웃어 주는 것이 너무 좋다. 하하.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 하는 마음 덕분에 이제 ‘조직’도 두렵지 않다. 숨는 데 급급했고 어느 누구와도 소통하려 하지 않았던 내가 지금은 아주 많이 달라졌음을 안다. 상대에게 나를 표현하고 그것이 메아리처럼 울릴 때만큼 짜릿한 경험도 없다고 생각한다.

선배님과 후배들, 이곳에서 나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있다. 그들에게 내 마음을 주고 또 그 마음을 받는다. 얼마나 멋진 경험인가! 떠난 뒤 다시 돌아오고 나서야 비로소 ‘가족’을 느끼고 있는 내가 한편으론 대견하다. 비로소 다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나를 본다.

돌아온 지 벌써 1년 반이 다 되어 간다. 늘지 않을 줄로만 알았던 속기 실력은 감히 스스로를 평가하건대 아주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을 느낀다. 크게 욕심부리지 않았으니 만족한다. 그리고 또 희망이 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최고의 칭찬은 내 몫이 되리라는.

부족하고 객기 넘치는 글이지만 이 글,

아직 두 발로 우뚝 서지는 못했지만 이 자리에 바로 서게 도와주신 선배님들과 나를 지지해 주고 사랑해 주는 2003년 입사 동기들에게 이 고백을 바칩니다.



영원한 속기사

이혜정

벌써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 돌아왔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도 꽃봉오리를 터뜨린 벚꽃을 비롯해 개나리, 진달래 등 각종 아름다운 꽃들이 한껏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어쩌면 그리도 아름다운지 정말 볼수록 마음 밝아지고 봄의 따사로운 햇살이 마냥 좋기만 하다.

이런 계절을 만들어 주신 신에게 감사한다.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모든 생물들이 소생하는 봄처럼 푸릇푸릇하고 싱그럽기를 기도해 본다.

세월이 흘러흘러 부푼 꿈을 안고 국회 속기사로서 입사한 지 어느덧 사계절이 열 번 넘게 바뀌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고 속기라는 것은 알면 알수록 더 어렵기만 하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한 가지를 알고 나면 또 새롭게 알아가야 할 것도 많지만 이러한 시대 변화와 함께 그동안 속기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특히 소위원회도 속기를 하게 됨에 따라 늘어난 업무량의 증가는 물론이거니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다.

처음 소위 속기가 시작될 당시에는 지금보다 속기 환경이 너무도 열악했다. 상임위와 달리 장소가 협소하고 주변에서 웅성거림도 많았으며 발언자들이 여기저기서 툭툭 하는 말들을 받아 적으려면 귀를 쫑긋 세워야 했는데 여간 신경이 곤두서는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20분을 속기하고 회의장에서 나왔을 때 ‘아~, 이걸 어떻게 번문을 하나’ 싶었다. 무슨 내용을 썼는지조차 모르겠고 정말 머릿속이 텅 빈 게 비몽사몽 헤맨 기분이었다. 그때는 어떻게 원고를 해냈는지……

그래도 지금은 제법 녹음 시설을 갖추었고 개인별로 MP3가 지급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소위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발언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다 받아 적을 수가 없는데 테크와 MP3 덕에 보다 더 생생하게 회의상황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기노트는 여전히 보물 1호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또 혼자서 소위 회의장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발언자 체크하기에 곤란한 경우도 가끔 발생한다. 물론 첫 째이나 앞 째에서 발언자를 메모해 놓지만 자기 소관 법률이 끝나면 수시로 자리를 떠나고 다른 담당자가 와서 앉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것에만 의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임위에서는 대부분 낮익은 사람들이 나와서 발언하기 때문에 혹시 그때 체크를 못하더라도 추후에 확인이 가능하고 정 안 되면 부처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소위에서는 실무자들이 답변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뒷자리에서 일어나서 발언하고 회의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속기 환경이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번문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속기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상임위를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소위원회를 하다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을뿐더러 소위 관련 자료를 찾아서 확인하고 여럿이 증언부언한 것을 정



리하기란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요즘 본회의를 비롯해서 상임위원회는 국회 홈페이지에 영상회의록이 등록되어 있어 회의상황 확인이 용이하고 발언도 그대로 살려 주는데 반해 소위는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과감하게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어야만 회의록의 모습을 갖추기 때문에 정리하는 게 더욱 힘들고 오류에 빠질 위험 역시 크다.

그래서 일부러 비공개회의나 소위를 먼저 번문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조금이라도 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을 때, 그리고 자료 접근이 편할 때 먼저 하는 것이 업무 효율을 높여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소위원회를 우선 번문하는 이 방법은 소위원회 속기가 의무화되는 6월부터는 한번 공론에 붙여봄직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속한 2과 4계는 재정위원회를 맡고 있는데 위원회 특성상 상임위원회 회의보다 소위의 비중이 매우 높고 1소위와 2소위, 심지어 3소위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계와 터서 도와주는 시스템을 한때 논의해 봤지만 회의가 겹쳐 열리는 날이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여의치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속기사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다. 그래서 속이 상하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여유가 생길 듯하다. 회의장에 갔다 와서 열심히 원고를 하고도 혹시 틀린 것은 없는지 마음 졸이고 하나라도 틀리면 얼굴이 붉어지는 그 마음을, 하나의 회의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속기사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노력과 정성을 쏟는지, 과연 몇 사람이나 알아줄까 싶다.

그래도 나는 한다, 속기사니까.

그리고 우리는 안다, 속기는 영원하다는 것을……

제39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속기협회는 2006년 2월 3일 오후 6시 30분 여의도종합상가 5층 신동양에서 제3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안기철 총무이사의 개회 선언과 함께 국민의례, 성원 보고의 순으로 총회가 진행되었고 이어서 지난 2005년 8월 3일 개최된 제13회 속기경기대회의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다음으로 고흥길 회장이 새해 인사와 더불어 회원 여러분이 계속 성원해 주시고 믿어 준다면 금년에는 협회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일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셨다. 또한 앞으로 이사장님과 임원진,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과 좀더 대화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보자는 제안을 주셨다.

이후 순서는 김창진 이사장의 회의 주재하에 총무이사의 2005년도 회무 및 사업실적 보고에 이어 첫번째 부의안건인 2005년도 결산승인의 건 결산보고와 최성주 감사의 감사결과 보고가 있었는데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두 번째 부의안건인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또한 원안대로 승인됨으로써 부의안건 심의를 모두 마친 뒤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제39회 정기총회를 폐회하였다.



편집 후기

www.steno.or.kr

마음이 늘 무거웠다……

42호의 탄생이 나에게 자유로이 떠날 수 있는 날개를 달아 주길 바랐는데 막상 지금, 부끄럽기만 하다.

仲

나와는 너무 친하지 않았던 “글” “기자” 라는 단어,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얼마큼 친해질 수 있을지……

任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편집후기를 쓰려니까 조금 어색한 것 같다. 들인 노력보다 훨씬 멋진 속기계가 탄생하기를 바랄 뿐……

朴

편집기자라는 사실이 심리적으로 무척이나 부담스럽고 바쁘게 느껴졌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 정말 별로 한 것도 없이 어느새 속기계 만드는 일이 마무리되었다. 이걸 순전히 능력 있는 홍보부장님이 계신 덕이 아닌가 싶다. ㅎㅎ 다음번에도 이렇게 물어갈 수 있으려나…… . .

芝

투고를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속기연구 발표의 창구 노릇을 함으로써 속기문화에 기여코자 함이 본 회지의 발간 취지인 만큼 회원 여러분의 어떠한 투고도 환영합니다.

보내실곳 : 본 협회 홍보부(국회 속기과)

TEL. 02)788-2371, 2471

홈페이지 : www.steno.or.kr

e-mail : yjune@assembly.go.kr

내 용 : 표지그림 · 사진, 연구논문, 속기실무, 수필, 회상기, 시,
시조, 산문, 기타 제언 등



투고를 바랍니다

회 비 : 1년분 20,000원
(가입비는 10,000원)

협회발전기금 : 30만원 이상을 납부한 회원에게는 평생회원으로써 회비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보 내 실 곳

- 발전기금 : 농협 036-01-083485 대한속기협회
- 회 비 : 농협 036-01-002844 이봉선(협회재정부장)



§§ 속기요금표 §§

1998. 2. 8 시행

속기 기본료	1 시간 당	300,000원
녹음 재생	1 시간 당	350,000원
전문 분야	1 시간 당	350,000원
외국어 속기	1 시간 당	400,000원
요점 속기	1 시간 당	200,000원

- 1시간 미만의 기록시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총 속기요금의 40% 이상을 계약금으로 받은 후 번문에 착수한다.
 - 지방 출장 시에는 상기 요금 외에 일체의 비용을 의뢰자가 부담한다.
 - 요지작성료는 상기 요금 외에 매시간당 50,000원씩 가산한다.
 - 이 요금표의 적용은 1급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한다.
- ※ 협회의 직인이 없는 요금표는 무효임.

속기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변문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일체 누설하지 아니한다.

사 단 법 인 대 한 속 기 협 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

(국회사무처 속기과내)

전 화 : 02)788-2371~7

速記界

발행 : 2006년 6월 1일

발행인 : 고흥길

편집인 : 조영기

기자 : 김영중 / 유점임 / 박윤희 / 김지숙 / 이경진

발행처 :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인쇄처 : (주)조양애드컴

전화 : 02)788-2371~7

FAX : 02)788-3386, 3387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홈페이지 : [http : //www.steno.or.kr](http://www.steno.or.kr)



“

속기사의 신조

1. 우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1. 우리는 번문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우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일체 누설하지 아니한다.

”